

월간 충현

The Monthly Chung Hyeon

성전 건축의 달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3월
1985년

충현교회는 새 성전을 짓는 복을 받았다.

당회장 김 창인 목사님이 '새 성전을 지으려면 일곱 번 고개를 넘어야 한다'고 하신 말씀이 기억난다. 고개란 넘기가 쉽차고 힘든 길을 말한다.

그러면 성전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넘기가 힘이 들지만 그래도 넘어야 할 일곱 고개란 어떤 것인가?

• 첫째 고개는 예배당 터를 준비하는 것이다. 지금 새 예배당이 세워진 이 땅은 16년 전에는 집 한 채 없고 갈대만 무성했던 허허벌판이었으나 당시 9천만원(지금의 시가는 100억원 쯤 된다)을 주고 매입한 것이 첫째 고개이다.

• 둘째 고개는 건축허가를 받는 것이다. 땅을 샀으니 이제는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청원서를 제출하였더니 해당 부서에서 한 마디로 거절하면서 이 지역은 8미터 이하로 이층집 만을 지을 고급 주택지역서 예배당은 못짓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1년, 2년 허가를 미루더니, 하루는 시에서 신문에 공고하기를 '이 땅은 학교부지로 결정이 되었다'라며 완전히 묶어버린 것이다.

그 때 우리는 속수무책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김 목사님의 불굴의 노력으로 이 땅을 도로 찾게 되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학교부지로 공고했다가 다시 해제한 경우는 충현교회 밖에 없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관계기관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를 하며 계속 미루므로 10년이 흘러서 10·26 사태가 발생한 이후 1980년 2월에야 결재를 해주었으니, 땅을 사기도 어려웠고 건축허가를 받기도 어려웠다. 이렇게 두번째 고개를 넘었다.

• 세번째 고개는 예배당을 짓기 시작하는 착공이다. 시작이 반이라고 큰 일은 시작하기가 어려운 법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고생할까보아 감히 큰 일에 도전을 못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꿈처럼 '고생을 할테면 해 보자'하며 밀어붙이니까 큰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교회는 김 창인 목사님을 선두로 온 성도가 모두 미련쟁이가 되어 1980년 4월 8일에 착공 예배를 드리므로 이 세번째 고개도 넘었다.

• 네번째 고개는 상량예배이다. 본당을 올려놓고 상량을 하는 네번째 고개는 성전건축의 꼭 절반이 되는 고개이다. 돈으로도 절반이 들어갔고, 정신적 부담으로도 절반이 소모되는 중심 고개로서 지난 1981년 11월 12일에 넘어갔다.

• 다섯번째 고개인 입당예배는 1984년 4월 21일에 총무로 5가에서 한강을 건너 이곳 역삼동으로 이사를 마침으로 은혜 중에 이 고개를 넘었다.

되돌아 보면 이상의 다섯 고개가 하나같이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넘게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하다. 앞으로 예배당이 완성 되기까지는 두 고개만 남았다.

• 여섯번째 고개는 낙성예배이다. 연장을 놓고 작업복을 벗고 일을 끝낸다는 말이다. 이렇게 되는 날 높이 솟은 교회의 종탑이 서울을 지키는 망대와 같이 믿음직스럽게 보일 것이다.

• 일곱번째 고개인 헌당예배는 빛을 한 톨도 없이 다 갚고 이 예배당 건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예식이다. 이 마지막 고개만 넘으면 영광스러운 새 시대가 전개될 것이다.

후손 만대가 이곳에서 선조들의 노고를 기억하며 교훈을 받으며 영혼이 자라게 될 것이다.

다섯 고개를 넘어오느라고 피곤해진 성도여, 앞으로 두 고개만 넘으면 되는데, 다시 한번 신들매를 당겨 매고 일어서자.

주간 이 성근

五大目標

天國일꾼養成
北韓宣教
民族福音化
世界宣教
聖殿建築

월간 충현

1972년 4월 30일 창간
제13권 제3호
통권 127호

충현교회의 신조

우리는 전통적 개혁주의에 입각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하여 신앙생활을 확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둔다.

1. 말씀을 파수하는 교회가 된다.
2. 천국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된다.
3. 민족과 세계복음화를 위한 교회가 된다.

3월호

차 례

권 두 언 /	두고개만남으면	주 간	2
이달의말씀 /	성전을 정성 다하여 건축하면	김창인	4

◁ 기획특집 ▷

▲ 3.1운동의 교회사적 의의.....	김차생.....	6	
▲ 새 예배당 3차공사 개요.....	최 환.....	10	
▲ 건축에 따른 우리의 기도.....	최무길 하대선.....	16	
▲ 고당 조만식 선생.....	조현명.....	14	
▲ 교회성장과 교회교육.....	조영길.....	12	
충현 칼럼 / 새성전건축 3차공사앞에 놓고	조선근.....	17	
교우문에.....	주님의지상명령.....	강은원.....	21
.....	내눈을들어보게하소서.....	김정자.....	22
.....	3월의 기도.....	송환창.....	20
.....	역삼의언덕위에.....	한영선.....	18
□ 특별기고	주님이기뻐하시는정치.....	이세열.....	23
□ 선교사·선교소식.....			25
□ 이름없이 빛도 없이“교통정리 최대주”.....	편집부.....		31
□ 자원봉사자에게 드리는 글.....		박치민.....	31
□ 교회소식.....			28
□ 이달의 교우동정.....			32
□ 찬송가 해설.....(찬송 426장).....	편집실.....		24
□ 독자의 편지.....			33
□ 이달의 행사 및 편집후기.....			34

□ 표지사진설명 □



우리 교회가 당면한 문제중 시급을 요하는 것이 있다면 본 예배당 3차 공사이다. 뼈대만 세워진 앙상스런 본당을 바라볼때마다무언가 죄책감을 갖는 것은 무슨 연유일까? 기도가 부족한 탓인가? 정성이 없는 탓인가? 금년엔 새 예배당 건축이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심정은 모두가 똑같을것 같다.

성전을 정성다하여 건축하면

김 창 인 (목사·본교회 당회장)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잇도의 손자 스가라의 권면함으로 인하여 전 건축할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 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좇아 전을 건축하며 필역하되』 (스6 : 14)

주전 538년 고레스왕이 즉위한 첫 해에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시어 온 나라에 놀라운 공포를 내리게 했습니다. 그 내용이 에스라서 1장1-4 절까지 나오는데, 믿지 아니하는 이방 왕이 하나님의 감동함을 입어 공포한 것입니다.

『하늘의 신 하나님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고레스 왕은 자기가 잘나서 천하 만국을 통치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와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여 유다 백성을 보내었더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이 42,360명입니다.

돌아온 백성이 감격의 눈물을 쏟으며 지대를 고르고 나무와 돌을 준비하여 성전을 건축할 때에 감격과 정성으로 쌓아 올리기 시작합니다. 몇달 동안 성전을 잘 지어나가다가 불행하게도 그만 중단해야 할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방해꾼이 많아지고, 경제적 실력이 모자라고, 내부에서 배반하여 원수의 앞잡이가 자꾸 늘어나므로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1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선지자 학개, 스가라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이 바벨론에서 죽지 않고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을 지으라고 해서 고국에 돌아왔으면 성전을 지을 것이지, 중간에 방해꾼이 있다 하여 건축을 포기하고 15년이나 만짓만 했으니 될 말이나? 성전이 다시 폐허가 되어 가는 데도 너희가 관벽한 집에 사는 것이 옳느냐? 소시민적으로 개인들만 좋은 주택에서 사는 것이 옳느냐? 안된다. 하나님의 전을 먼저 짓자. 이제는 생명을 걸고 성전을 지어야 한다. 그러다가 원수에게 맞아 죽으면 후손들에게 순교자의 교훈이라도 남길 것이다. 우리가 이런 환경에서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 편에서 기적을 행하실 것이다.”

학개와 스가라 선지자가 눈물로 호소할 때에 한 사람, 두 사람, 백 사람, 만 사람이 ‘옳소’ 하며 팔을 걷고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먼저와는 다릅니다.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건축헌금은 재산의 십분의 일이나 십분의 삼도 아닙니다. 몸땅 털어서 결사적으로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에 방해꾼이 또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원수들이 아무리 성전짓는 것을 막으려고 방해해 해도 땀과 눈물을 쏟으며 생명을 걸고 시작한 그들인지라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원수들이 다시 바벨론 임금님에게 고소장을 올렸습니다.

“임금님,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지 말라는 아닥사스다왕의 조서가 이미 내려졌는데 유다 놈들이 다시 공사를 시작하여 성전을 짓습니

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고레스왕의 조서대로 짓는다고 하오니 임금님, 그 말이 사실인지를 조사해 보시고 성전짓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다리오 임금님에게 고소장을 올렸읍니다. 그리고 그들은 ‘며칠만 있어 보아라. 너희를 모두 잡아 죽일 것이다’ 하며 기다리고 있었읍니다.

다리오 왕은 고소장을 받고는

“나의 장인 고레스왕이 성전건축을 허락한 줄 아는데 도중에 아닥사스다왕이 똥단지같이 공사를 중지시켰다니 말도 안되지”

이리하여 서적 공간을 뒤져 장인 영감인 고레스 왕이 17년 전에 성전건축을 허락한 조서 두루마리를 찾아 확인을 했읍니다.

그리고 태사관을 불러

“씨라 첫째, 성전건축의 모든 비용은 국고에서 지급해라. 둘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방해하지 말라. 물론 누구든지 성전건축을 방해하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저를 그 위에 매어달게 하고 그 집은 거름더미가 되게 할 것이다. 빨리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요구하면 소, 양, 밀가루 소금, 포도즙 등 구하는 것은 모두 공급해 주어라. 다시 말한다. 성전짓는 일을 방해하는 자가 있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저주하시기를 바라노라”

왕의 조서가 내려온 것을 방해꾼들이 보고는 아연실색합니다. 우물쭈물 하다가는 제가 죽겠읍니다. 그러니 며칠 전까지는 공갈을 치며 죽인다고 협박하던 자들이 대세가 기울어지니까 이제는 찾아와서 “성전을 지으시려고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하는 식입니다.

“점심은 제가 대접하지요.” 소와 양을 잡아오고 나무와 돌을 실어오고 열심히 옹원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때가 오면 방해꾼이 따로 없읍니다. 그도 협력자가 되었읍니다. 제가 평양에 가서 예배당을 지을 때에 김일성이 협력자가 될는지 누가 압니까? 걱정할 것 없읍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이루어지면 땅 위의 누가 감히 방해하리요. 태양이 올라오는 것을 누가 붙들어 못 올라오게 하겠나 말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방해할 자가 없읍니다.



이제 예배당을 짓습니다. 생명과 물질을 내놓고 찬송을 부르고 춤을 추며 일을 하니 성전이 얼마나 잘 올라가는지! 이래서 4년 6개월이 걸려 성전을 완공했읍니다.

성전을 다 지으니까 첫째,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둘째, 악독한 원수들이 제각기 와서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합니다. ‘그 동안에 잘못된 것을 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그럴게요’ 모두 와서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4년 6개월이나 성전만 지었으니 백성은 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열심히 성전을 지었더니, 그들의 몸이 튼튼해지고 마음에 평안이 오고 물질로도 부자가 되었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판약에 15년 동안 성전 건축을 중단했던 그들이 학개와 스가랴의 외침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의 씨가 땅 위에 없어졌을지도 모릅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생명을 바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다리오왕의 조서는 기적 중의 기적이었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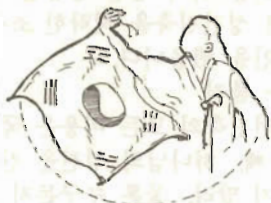
성전을 지으니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원수가 와서 자진 항복하는 승리를 얻고,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육신에 부자가 되고 자손만대에 복을 받아 천국의 길이 트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출현 예배당을 짓는 일에 에스라, 학개, 스가랴 시대에 성전을 지은 정성으로 바치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것으로 믿읍니다.

3.1운동의 교회사적 의의



김 차 생 (장로 · 기획조정실위원)



1919년 6월 당시 조선총독부의 발표를 보면 경찰에 의해 투옥된 기독교인의 숫자가 2 190 명이다.

그리고 완전 파괴된 예배당이 17동이고, 파손된 곳이 24동, 피해당한 교회가 41동 등 교회 재산만의 피해가 당시 미화로 3 만불이며, 오산 중학교의 피해가 5 천불이라고 했다.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가운데는 기독교, 천도교, 불교 등 종교지도자로 구성되었다.

이 가운데 기독교인은 이승훈선생을 비롯해서 길선주목사등 16명이었고 천도교는 손병희선생을 포함해서 15명, 불교는 한용운선생을 위시하여 2 명이였다.

그당시 천도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교세가 강한 종교로 신도수가 1 백만을 넘기고 있었지만 기독교는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온지 불과 35년밖에 되지 않은 선교초기여서 신도수가 25만정도였다.

우리나라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불교

는 불과 2 명의 대표자만 참여했다.

이 운동에 민족대표인 손병희선생은 당시 천도교의 교령으로 천도교를 대표하는 분이었고 독립선언을 포함, 이 운동의 자금을 담당했다.

우리가 한가지 알아야할 것은 3·1운동이전에 독립정신이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1896년 서재필, 윤치호, 이상재, 안창호 등 기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 독립협회가 설립, 운영되면서 부터였다.

그러나 1899년 독립협회가 해체된 뒤에 나라의 형편이 어지러워 건잡을 수 없게 되었고 안창호, 전덕기, 안태국, 이동녕, 이동휘 등 기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전국 기독교 지식층들은 「신민회」라는 구국독립을 목적으로 한 비밀 결사만을 조직하고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각 방면의 진흥운동을 전개하면서 국가의 실력을 기르는 한편 항일 운동을 크게 전개하였다. 당시 평양 대성학교와 원주 오산학교는 항일운동으로 유명했었다.

기독교의 애국정신으로 표현되는 사회참여

아브라함의 굳은신앙, 모세의 피끓는 동족애
다윗의 불굴의 용맹, 솔로몬의 지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순국순교의 정신을 계승하여 나라를 사랑했다.

“신민회”는 약 800명으로 조직된 애국사상이 철저한 사람으로 가장 유력한 항일 단체가 되었다.

또한 3.1운동이 일어나게 됐던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2월 8일 일본 동경 YMCA에서 일어났던 2.8독립사건을 들어서 이야기 한다면 역시 3.1운동의 기선은 기독교 쪽이라고 보아도 옳을 것이다.

그리고 3.1독립선언 초안자인 최남선 선생이 당시 상동교회에서 시무한 전덕기목사에게 세례를 받은 분이라는 사실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독립선언서의 정신은 분명히 기독교의 평등, 자유, 정의, 인도의 사상을 담고 있다.

특히 공약 3장에 나타나는 무저항 정신은 “정의, 인도, 자유에서 나오는 기독교의 정신인 것이다.”

이 무저항 정신은 인도 독립의 지도자 간디의 무저항 정신을 뜻하는 것으로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할만하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래된 지 불과 35년에 교인수 25만의 소수였지만 나라를 구하겠다는 애국의 열의는 당시 기독교신자의 가슴을 불태우고 있었다.

3월 1일, 당일 민족 대표들은 태화관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후 왜경들에 의해 연행 모두 구금되었다. 파고다공원의 선언문낭독은 학생

들에 의해서 행해 졌으며 고종황제의 장례에 참석하기 위해서 전국방방곡곡에서 사람들이 몰려 들었지만 이 만세운동을 이끌고 나간 사람들은 학생들이었고 특히 세브란스, 이화학당, 경신, 정신 학당 등의 기독교계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움직임이 돋보인 것은 주목할만한 사실이다.

그리고 이 운동을 지방으로 확산시킨 것은 이들 미션계의 서울 유학생들과 또 교회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또 수원, 천안등에서는 교회를 중심으로 활발한 운동이 전개되었고 평양을 중심으로 서북일대에도 기독교를 중심으로 이 운동은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갔다.

또 하나 특기할만한 것은 이 민족독립운동이 미국, 캐나다, 호주등 선교사들의 입과 글을 통해서 세계에 알려진 사실이다.

스코필드 박사는 제암리교회의 방화살인사건을 전세계에 알렸고 언더우드 선교사등도 3.1운동을 비교적 소상하게 미국의 언론기관에 알렸다.

이 운동이 비록 성공을 거두어 당장에 독립을 쟁취하지는 못했지만 제 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함께 우리나라의 독립을 4대강국 거두들이 거론하게 된것은 선교사들이 3.1운동의 거사를 세계여론에 반영 시키는데 공헌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3.1운동에 대한 교회사적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그것은 기독교인들의 애국정신으로 표현되는 사회참여 정신이다.

당시 한민족에게는 절망의에는 아무 것도 남은 것이 없었다. 이런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은 일어나서 희망의 횃불을 들어 민족의 앞길을 밝혀주었으며 아브라함의 굳은 신앙, 모세의 피끓는 동족애, 다윗의 불굴의 용맹, 솔로몬의 지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순국 순교의 정신을 계승하여 나라를 사랑했고 민족의 진로를 제시했다고 본다.

그리고 나라사랑의 독립운동은 미국 선교사들의 후원을 얻은 것은 결코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들은 오히려 일본의 통치권에 순종할 것을 은연중 침묵하고 있었으며, 또 미국 정부의 훈령도 선교사들이 정치문제에 일체 관여하지 말라고 다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선교사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면 잘 들어온 교회이지만 나라를 찾겠다는 생각에 그들은 어쩔 수가 없었다.

1910년 합병이 선언된 이후 숨막힐듯한 압력을 36년간 견디어 오면서 그당시 기독교인들은 구약성경이 가르치는 애국사상을 철저히 몸에 익혔다.

이와 함께 모두 모세가 되는 꿈을 꾸고 있었고 에레미야와 같은 심정으로 눈물의 기도를 했던 것이다.

어떤 민족이든지 마찬가지이지만 민족의 흥망을 앞에 놓고 하는 기도에는 땀과 눈물과 피를 쏟는 법이다. 예레미야의 기도처럼 당시 25만 기독교인들의 한결같은 기도대열엔 남녀노소가 있을 수 없으며, 유관순은 에스더의 심정으로 팔세를 부르다가 참혹한 고문을 당하고 옥중에서 순국했고 그 밖에 많은 애국청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때문에 이 운동은 교회가 있는 지방은 어디든

지 일어났고, 기독교인들은 공식예배서나 가정예배, 개인기도에서 항상 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다.

일제말엽에 교회가 일본의 손아귀에 들어간 뒤에도 마음속으로 드리는 기도만은 빼앗아 갈 길이 없었다.

어떤 목사에게 설교를 못하게 하자 그는 기도를 설교에 대신하면서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주님이시여 주님의 뜻대로 사는 민족에게는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사는 나라는 징계의 채찍을 내려 회개시켜 말년에 멸망의 쓴잔을 면케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여 교인들은 눈물의 바다를 이루었을 때도 있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이 동산에 할일 많아 사방에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가려고”의 찬송가는 기독교인들의 민족정신을 크게 북돋아주었다.

기독교인들이 일본관헌들에게 취조를 받을 때 주모자가 누구냐고 물으면 하나님이 시켜서 하였다고 대답했으며 그 당시 기독교회는 일본침략정치에 항거하는 강력한 조직을 가진 단체가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일본헌병들이 예배당을 무조건 불사르고 기독교인들을 무차별 체포한 것도 우연한 일이 결코 아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정의, 평등, 신앙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웠으며 무력으로 인간을 압제하는 만행이 인도주의에 맞지 않는 억지임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다.

무력을 사용하면 망한다는 역사적 사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저항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불의에 저항하다가 매맞고 옥에 갇혀 죽는 것이 곧 순교라고 알았기 때문에 용감할 수 있었고 애국하는 길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당시에 많은 애국자들이 교회에 몰려오게 된 것도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며, 한국교회는 선교

초기부터 민족사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되었다는 것도 3·1운동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게 되었다.

예수그리스도가 교회의 본분인 빛과 소금으로 사회가 필요로 하고 민족이 필요로 하는 종교가 오직 기독교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비전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는 유대 랍비들의 가르침처럼 한국교회는 암흑기에 민족사의 횃불이 되어 꿈을 보여 주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기독교는 어떤 민족이나, 한 국가의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세계성을 띠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세계적인 연대성에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정의와 평화와 자유를 수호하려는 입장을 견지하기 때문에 약소민족들에 대한 독립에 관심을 표시했다는 점이다.

포츠담이나 알타회담에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약속하게 된 것은 선교사를 포함한 구미의 크리스찬들이 여론으로 우리나라의 독립을 환기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3·1운동이 일단 실패로 돌아가고 다시 10년이 경과한 1930년대 부터 일제가 다시 철저한 강압정책과 민족말살정책을 표방하자 한국교회의 양상은 눈에 보이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 중에 일부 목사들이나 교인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일제에 항거했고 일부는 일제가 시키는 대로 신사참배도 하고 전쟁 수행의 노예생활을 자청했다. 또 일부는 타계주의 신앙에 몰입해서 현세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는 입장으로 나가는 자도 있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주남선, 한상동, 목사 등은 신사참배에 정면 거부하고 일제의 총칼앞에 가슴을 내밀며 항거를 했을뿐만 아니라, 무서운 고문과 또 회유를 건지기 위해서 피를 말리는 투쟁을 해야 했으며 옥중에서 순교를 하는 분도 있었다. 이분들이 끝까지 항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 한국 교회의 백년의 전통은 생각할 수가 없다.

사실 그들이 그 무서운 잔혹 행위를 감당하고 철문을 나설 수 있었기 때문에 해방후 한국교회는 민족앞에 위신을 세울 수 있었다.

반대로 생명을 구걸하기 위해서 일제가 시키는 대로 신사참배도 하고 일제가 수행하는 전쟁 지원을 위해서 그들의 앞잡이 노릇을 한 많은 목사들과 장로들이 있었는데 이들의 일부는 남산 신사에서 일본 신도의 교육을 받았고 또 일부는 한강에 나가서 소위 신도식 세례를 받은 이도 있었다.

이들은 일본신도의 본산인 이세 신궁에 가서 참배하기도 하고 찬송가의 가사에 먹칠을 해서 지우기도 했으며 예수재림의 성 경구절을 지우면서 그들의 명령에 노예처럼 순종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의 결과는 목숨을 구걸하는 일밖에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다. 이렇게 되는 동안 한편으로는 한국교회 교인들의 신앙은 타계주의로 기울기 시작했다. 현세에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이 회망마저도 없다 생각하고, 오직 죽음 저 건너편에 있는 세계에 대해서만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현실 도피주의 극단적인 신비주의적 대망신앙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이 타계주의 신앙은 오늘날까지 한국 교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이것이 오늘날에는 기복신앙의 경향으로 탈바꿈하여 올바른 신앙의 길에 울무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교회는 이제 3.1운동때 보여준 민족의 지도적 위치를 찾아야 하고 그때의 당당하고도 철두철미한 신앙의 바탕위에서 나라를 사랑했던 용기를 회복해야 한다.

하나님은 항상 정의와 평등과 자유의 편이며 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칠 수 있는 용기있는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오늘날처럼 도덕적 부패와 자기 중심주의로 민족관념이 희박한때에 우리는 3.1절을 당할때마다 “너희는 먼저 그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의 뜻을 음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새예배당

3 차공사개요



최 환

(안수집사 · 건축설계사)

새성전 건축공사가 시작되자 벌써 햇수로 7년이고 만으로는 6년째가 된다.

18세기말 영국을 중심으로한 산업혁명은 수공업을 기계공업으로 변혁한 이후 건축의 모든 공사는 기계화 되어가고 있고 건축자재도 규격화 되면서 건축기간도 빨라지고 있다. 그러므로 현대 건축에서는 아무리 높고 그 규모가 커도 10년을 넘기는 경우는 거의 드물게 됐다.

여기에 우리 총현교회는 하나님의 지상명령만 믿고 경제적으로 준비된것도 없었고 사회적 여건도 불합리한 가운데에서 오직 믿음으로 당회장 김창인목사님을 선두로 모든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물질을 바쳐서 맘을 흘린 결과로 현재에 이르렀는데 어려운 고비에 부딪힐적마다 하나님께선 우리들에게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한강을 건너서 역삼동 땅으로 이사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처음에 눈에보이는 성전을 빨리 건축하는날을 달라고 외치며 기도했다. 온교인이 일치단결하여 매어달리니 첫번째 기적을 주셨던 것이다.

두번째 기적은 홍해를 건너는 것같이 하루속히 한강을 건너 강남땅으로 성전이 이사갈 수 있게 하여달라고 외치니 현재 강남 역삼동에 이사할수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을 거울삼아 열심을 나타내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세를 선두로 홍해를 건너는 이적과 기사를 실제로 체험하였으면서 원망과 불평, 불만으로 인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여리고성을 바라보았을 때 40년이나 늦게 가나안 복지에 들어간 사실

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있는 내용이며 하나님께서는 현재에도 보여주시는 경고와 교훈이 된다는 사실은 너무도 자명한 것이다.

우리가 당면한 오늘은 경제사정이 악화되고 사회구조적으로 대형교회를 건축하여서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 보다도 더 신랄하게 비평을 하고 방해를 한다고 할찌라도 우리는 믿음위에 굳게서서 피동적 자세에서 능동적 자세로 바꾸고 부정적인 자세에서 긍정적인 태도로 의견을 통일하여 순종하며, 전진할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총현에 성전도 본당에 입당하는날이 멀지 않을것이고 헌당하는날이 단축될것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3 차공사를 앞세우고 공사에 대한 개요를 소개하고자 한다.

막상 제3차 공사 발주에 대한 내용을 본다면 이제까지 공사를 진행했던 것보다도 여러가지 면에서 볼 때 힘든 일이 많이 집약되어있다.

3 차공사의 개요를 공사별, 공정별로 발주상황등으로 소개를 하고자 한다.

첫째, 본당공사. (약4200평)

1. 건축공사(내외장공사)
2. 음향공사
3. 특수조명공사 등이고

둘째, 지하 주차장공사(약4000평)

1. 건축공사
2. 식당 내장공사
3. 전관 방송공사
4. 조명공사 등이며

셋째 선교관 회의실 공사

1. 건축내장공사
2. 음향공사(동시통역시설 포함)
3. 특수조명 사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발

주상황으로 본다면 (공사업체에 외주하는것을 말함)

첫째 본당공사

1. 본당내장공사

본당 벽체는 음향계산에 의해서 구조및 재료를 택하여 방음 방화구조에 알맞게 설계가 됐으며 천정역시 음향곡선별 의해서 구조및 재료가 채택이 되었다. 바닥 역시도 아래 층에 소음이 전달되지 않는 고무종류이며 통로는 카펫트를 깔 예정이다.

본당내부의 부속실로는, 강사대기실, 음향조정실, 조명조정실, 동시통역실, 공조실 3개소 TV기계실, 조명기계실, 다용도실 5개소, 성가대 대기실 1개소, 준비실, 2개소, 물탱크실 2

개소, 조명실 1 개소, 등인데 특히 음향조정실과 조명조정실 동시통역실은 특수부분이므로 바닥 및 벽체는 특수구조로 되어있다.

특히 본당에 들어오는 홀, 주계단 비상계단 및 통로는 바닥 및 벽체가 화강석 물갈기 및 화강석 잔다듬으로 하고 주출입 중앙홀은 외국산 대리석으로 되어 있다.

2. 본당 외장공사

본당 외부는 전체가 돌집이다. 돌을 깎아 붙이는 내용으로 보면 일반벽체는 흑폐어 붙이기, 가사부분은 잔다듬, 기둥은 팔각으로 붙이기 기둥의 머리와 받침은 조각하여 붙인다 발코니의 난간 동자기둥은 잔다듬 붙이기이고 촛대 조각 큰아취 및 작은아취는 조각하여 붙이기이며 발코니 안쪽의 벽체는 바나나돌 평석 건식 공법으로 붙이게 된다.

본당 정면의 큰아취 창문과 둥근창(Rose)은 스테인드 그라스(Stained Glass)로 붙이게 된다.

3. 종탑공사

종탑은 지상에서 50m까지 돌로서 장식하게 되고 50m 이상 80m까지 (30m)를 구조는 H형강으로 뼈대를 세우고 뽕죽탑외장은 특수동판으로 접어서 붙이기를 하는데 2 개층 부분을 비둘기창을 만들어 조각을 한다.

종탑은 약 3 개층의 구조물로 층을 만들고 멜로디 종을 매어달수 있도록 설치가 되어 있다.

둘째 지하 주차장공사

지하 2층 바닥에 방수를 하고 약 10cm 두께로 콘크리트를 칠 때 바닥은 제물미장을 하며 하드너를 뿌려서 자동차의 마찰에도 견딜수 있도록 하고 트랜치 및 하수도 연결부분은 약취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고압벽돌 치장쌓기를 하게 되며 천정에는 흡음성이 좋은 재료를 약 10m/m 가량 뿌려서 어느 정도의 방음을 고려했다. 식당은 붉은벽돌 치장쌓기와 본타일벽으로 조화를 이루었으며 몇백명이 동시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바닥은 타일로 하며 천정은 흡음재료로 한다.

세째로 선교센터 5층, 국제회의장

방음을 위주로 하여 국제회의의 면모를 갖추어서 국제적인 실로서의 손색이 없도록 벽체와 천장을 디자인 했으며 바닥역시 방음을 고려한 바닥이다.

좌석수는 세미나 세에 약 300인이 수용이 될 수 있다.

이상에 소개 한것이 종합건설회사에 외주를

준 내역이다.

교회에서 종합건설을 통하지 않고 직접 발주해야 할 공사.

첫째 음향공사

본공사는 본당에 예배드리기 위한 목적이므로 본당에 한해서만 3 차공사에 포함을 시켰고 그 외에 1층에 중강당과 스튜디오 소집회실의 음향은 제외된다.

특히 이번 본당에 한정된 음향공사는 어디에서 도 찾아볼수 없을 정도로 특수하게 설계가 된것 이다.

둘째, 특수조명공사

본공사는 첫째 목적이 성도들이 강단에서 행사하는 내용을 피곤치않게 바라볼수있도록 설계가 되어졌으며 둘째목적은 예배시에 TV혹은 VTR 카메라를 동작시킬수 있도록 조도를 맞추어 놓은것이다. 여기에는 천정 조명실에서 45°도 각도로 비치게 했고 강대나 성가석 직상부에서 비출 수 있도록 했다.

세째, 전자울겐의 설치

본건은 비품으로 다루어져야 될 성질이지만 내장공사에 있어서 설치 위치라든가, 전자울겐 스피커의 결정이 실의 크기나 실의 용적에 맞추어서 계산한 근거에 의하여 스피커의 갯수 및 크기결정 또는 앰프의 위치 스피커의 각도등을 설계에 반영시켜 건축공사시 및 전기공사시에 차질을 초래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최소한 공사완공 1 년전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이 되어야 한다.

공사비 산출면에서 볼때 주택이나 사무소 건축처럼 평당가격이 얼마인가하는 간단한 계산이 나올 수 없다 왜냐하면 본당 1을 완성하기 위하여 부수되는 여러가지 여건이나 구조 면에서 볼때에도 본당의 천정은 보통건물의 4~5층이되는 높이일 뿐만 아니라, 천정 내부에도 여러개의 부속설들이 들어가게 된다.

이런 점을 미루어 볼때 우리 믿는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께 크게 영광돌린다는 뻔한 가슴을 안고 제 3 차공사를 완성시켜야 하겠으며 크게 우리나라 국민입장에서 볼 때 민주주의 기본원칙중에 하나인 신앙에 자유를 부르짖는 기독교의 문화유산을 완성시켜 세계를 향해서 바라봐야 하겠으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88년도 올림픽을 준비하는 이때 강남에 체육주의 소비주의 건물에 맞서서 퇴폐와 타락을 정화시키는 기독교 정신의 대표적인 건물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하루속히 완성시켜야 할 것이다.

교회 성장과 교회교육



조영길

(목사·교육위원장 제3교구 담당)

〈서론〉

교회의 성장과 부흥은 누구나 다 원하고있다 위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아래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한결같은 소망이다. 교회의 성장과 부흥에는 두가지가 있다. 그것은 작은 씨알에서 큰 관목(灌木)으로 자라나는 겨자나무와 같은 외형적인 성장과 적은양의 누룩이 많은 가루반죽속에 들어가서 그 가루 반죽을 전부다 부풀게하는 내부적인 부흥이 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성장이다. 누가 이같은 교회의 발전과 부흥을 마다하겠는가?

오늘 우리 총현교회도 새성전 정착의 꿈을 속히 실현해야겠고 우리교회에 주어진 5대목표도 결국 교회의 알찬 성장과 부흥이 왔을때에 더욱 앞 당길수가 있는것을 확신한다. 그런데 지상 교회의 성장과 부흥에의 목표는 제한이 없다.수만명으로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우리모두가 기대하면서 기도하고있다. 우리가 과연 이같은 꿈을 성취하려고 한다면 여러가지 면에서 노력하고 힘써야만겠지만 그중에도 특히 교육하는 일에 결코 소홀히 할수없는 일이라고 믿는다. 보다더 건전하고 알찬 교회의 성장과 부흥에는 반드시 효과적인 교육에의 프로그램이 제시되어야만하고 그 실행이 뒤 따라야만 한다. 교육없는 성장과 부흥은 크게 기대할수가 없는것이다. 왜냐하면 교육이 곧 성장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3회에 걸쳐 교회에의 성장과 부흥에 대하여 생각

하여 보려고한다. 특별히 세가지 면에서 살펴 보려고한다.

- I. 교회의 사명으로서의 교육
- II. 교회 교육과 교회성장
- III. 교회 교육과 그 방법이다.

〈본론〉

I. 교회의 사명으로서의 교육

교회의 사명을 생각하여 보기전에 교회에 대하여 먼저 생각하여보는것이 좋을것 같다.

1)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개념에 대하여 어원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말 할수가 있지만 각설하고 한마디로 “교회란 교육이다.” / 라고 정의할수가있다고 본다. 만일 교회가 교육하는 일을 하지 아니한다고하면 벌써 그것은 참된교회가 아니라고본다. 교회는 일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는 곳이다. “복음전도(EVANGELISM, 제자를 삼는것)와 교육(EDUCATION, 그들을 가르치는것)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한다.” 라고 하였다. 옛날 모세의 광야교육도 예루살렘성전과 포루시대이후 회당과 오순절이후의 교회도 모름지기 교육에 의하여 존재하여 온 것이다. 교육이 소홀한 교회는 왕성한 미래의 교회상을 기대할수가 없다고 본다. 하여간 교육적인 측면에서 교회를 볼때에 분명히 교회는 교육인 것이다.

2)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으로서의 교육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기본적인 사명들이있다. 그것을 세가지로 요약해 볼수가있다. 곧 예배와 (WORSHIP) 교육과(EDUCATION) 선교(EVANGELISM)이다.

올바른 예배와 선교에는 반드시 하나님의말씀(성경) 그 자체에의 교육을 매개체로한다. 예배는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최대의 봉사행위요 교육은 교회가 사람들을 향한 최대의 봉사행위요, 선교는 교회가 이 세상을향한 최대의 봉사행위인 것이다. 그런데 교육이 없으면 이 봉사행위가 제대로 되겠는가?

교육이 따르지않는 예배는 예배의 대상도 그 의미도 모르며 은혜와 복을 효과적으로 받을수가 없을것이다. 선교(전도라고 하여도좋다)도 마찬가지다. 교육이 없는 선교는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전해야되며 교회로 나아오는 그들을 바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 할수가 없을것이다. “교육적인 기능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교회는

결함을 지닌 교회일수밖에 없다” (JAMES D. SMART)

씨 에이취 다드(C. H. DOD)와 같은 학자는 디다케(DIAAKE, 교육을 뜻함)와 케리그마(KERUGMA, 說教를 뜻함)를 조심스럽게 구분하였지만 사실이지 교회에서의 케리그마(설교)와 디다케(교육)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전에 모으시고 세우신 사역자의 입을 통하여 교육하시는 그날의 메시지이다. 그 같은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같은 이세상에서의 삶을 지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이다. 교회에는 반드시 “교육이 있어야 영혼구원자가 나고 전도가 있어야 영혼구원이 이룩된다. 전도없는 교육은 바리새인을 만들고 교육없는 전도는 광신자들을 만든다” (ROBERT E. COLEMAN)

하나님의 교회는 유부식과 노소가 같이한다. 사람은 평생을 배운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교회가 케리그마와(PREACHING) 디다케(EDUCATION)로 이방위에 존재하는 것이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은 그의 성역초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 멍을 메고 내게배우라/고 하였고 친히 3년동안 12제자들을 교육하시는일에 집중하셨고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다시한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시지 않았던가? 그러므로 오늘 지상교회는 교육하는일에 주력하여 투자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3) 교회교육의 목적이 무엇인가?

목적없는 교육은 없다. 교회교육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하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한다. 교회교육학자 리처드(LAURANCE C. RICHARD)는 교회교육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데 있고 그를 닮는 목표를 향해 성장을 촉진시키는 전략을 우리의 교육전략으로 삼아야한다”라고 하였다. 이같은 주장에 동의하고 싶다. 그러나 좀더 구체적이고 분명한 목적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찾을수가 있다고 본다. 교회교육의 목적은 주를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들(엡 4:12)을 만드는데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들로 세우는데(골 1:28) 있는 것이다. 온전한 성도(PERFECTING OF THE SAINTS)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자(PERFECT IN CHRIST)란 결국 같은 뜻이기도하다. 믿음에 있어서의 성숙한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 충만함에까지 도달한 성도를 가르친다. 이것이 장성하고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만 신령한 열매를 맺는것이다. 바울은 이같은 성도들이 봉사할수가있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성도충성할수있는 성도들이 된다고하였다. 교회는 마치 과실목을 키우는 농부와같다고도 할수있다.

무슨 과목이던지 1~2년에 과실을 맺지 아니한다. 수년동안 정성을 기우려 키운다. 그 후에야 좋은 열매를 딸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들고 교회로 찾아오는 신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구주되심과 믿음에의 도리를 잘 가르침으로 그들이 깨닫고 믿음으로 성장하여 세례받고 거듭나서 마침내는 온전한 성도가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며 충성하고 그들이 또 나아가서 전도하여 열매맺게 하는것이다. 이와같이 교회교육의 목적은 어린아이들과 같은 신도들을(실제로 어린아들도 포함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여 믿음에 장성한자 곧 온전한 성도들로 만들어 내는데 있는것이다. 그리고 이같은 교회교육의목표아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말씀만을 가지고 교육해야만한다. 교회교육은 다른것을 교육하는것이 아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풀어 교육하는데 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을 살리고 사람들의 영혼을 만족케하며 믿음에의 성장을 가져다준다. 성경중심의 교육인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 것은 성경을 우리의 유일한 교과서로 삼기 때문이다. 강단에서 설교하는 내용도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목도 모두 성경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있다는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HAROLD L. FICKE TT) 그렇다면 성경중심 교육이 바로 교회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게되고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가져오게 되는것이다. (주·해롤드 L. 피켈 목사님은 교인 15명으로 시작하여 수만이 모여 예배드리는 미국의 벤 나이스 교회 목사님임)

교회의 성장은 교회교육을 그 매개체로한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교육이다.

교육은 또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다. 온전한 성도가 되게하며 모든 신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자로 세우는 교회교육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대로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만 미래적인 교회의 소수성을 유지하며 생존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고당 조만식 선생



조 현 명 (장로·당회서기)



고구려의 유적지인 강서에서 우리나라의 많은 훌륭한 인물들이 태어났지만 장로교 장로요, 민족운동가요, 정치가요, 교육자요, 수난자인 고당 조만식(古堂 曹晩植) 선생은 이북이 낳은 인물중의 인물이다.

선생은 1883년 2월 1일 선비인 부친 조정학(曹景學), 모친 김경건(金敬健) 사이의 1남 2녀 중 독자로 출생하였다. 유년 시절의 가정교육은 엄격하여 인자하면서도 근엄한 사랑의 교육을 실천하였다. 그의 이러한 교육 방침은 아들을 외유내강한 성격을 지니게 했고 단정한 인품을 이어 받게 했다. 어려서 평양으로 이사하여 여섯살때부터 한학자 장정봉(張正鳳) 선생으로부터 한학을 수학하였는데 후에 그가 기독교로 들어오게 된 계기를 마련해 준 한정교(韓鼎敎), 김동원(金東元)이 그의 동창생들이었다.

고당은 물산객주(物産客主)를 지영함으로써 축적된 그의 부친의 재산을 유산으로 받은덕택에 가세가 유족한 편이어서 일생동안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선생은 15세부터 22세까지 평양에서 포목상을 경영하여 상당한 재산을 모았는데 술 잘 먹고 돈 잘 쓰는 사업가로 이름을 날렸다. 폭음으로 건강을 잃어 부모로부터 생활의 절제를 권유받았고 동료 한정교의 적극적인 권유로 23세에 기독교 신자가 되어 이때부터 금주 단연(禁酒斷煙)을 하게 되었으며 평생토록 이것을 지켜왔다. 이듬해 사업을 정리하고 숭실중학교에 들어가 상투 머리를 쳐내고 신학문을 배우고 성경 공부를 함으로써 그야말로 심기일전하여 엄청난 생활 혁명을 단행한 것이다. 23세의 만학이었다. 근엄한 선교사 교장

베어드(William M. Baird) 밑에서 지(知), 언행(言行)이 일치하는 기독교의 사랑을 실천하는 청년이 되었다.

선생은 애국계몽 운동의 열기에 휩싸인 그 당시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다시 일본에 유학하여 1910년 메이지(明治)대학 법과에서 한 단계 수준 높은 교육을 받게 되었다. 선생이 법과를 택한 이유는 조국의 독립과 독립 후의 국정을 위해서는 선진 각국의 법제를 먼저 연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에서 이었다.

선생이 2년만에 고국에 돌아오니 국운은 날로 기울어지다 못해 숨을 거두게 된 것이 아닌가! 그는 다시 토오교로 돌아가 학창에서 진리를 탐구하는 한편, 학생 신분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큰 일 한가지를 하였다. 그것은 장로교와 감리교를 연합시켜 제일 조선인 교회를 설립한 것이었다.

1913년 메이지대학을 졸업한 선생은 남강 이승훈(南崗 李昇薰) 선생이 세운 오산학교(五山學校)에 초빙되어 교사와 교장으로 약 7년간 교육자로서의 길을 걸었다. 민족 정에 교육에 헌신한 선생은 무보수로 민족교육에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 가족을 평양에 둔 채 학교 기숙사에서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고당은 교장이자 선생이요, 사감이요, 사환이요, 거기에 또한 성경을 가르치는 직책까지 더하여 1인 5역의 주야근무에 최선을 다했다. 이때부터 고당은 특이한 풍모로 국산품 애용과 근검절약의 확고한 신념을 실천으로 보였다. 말끔히 빗빳 깎은 머리와 단출한 무명 두루마기는 선생의 표상이었다.

3·1운동 직후 상해(上海)에 망명하여 그곳에서 본격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할 계획으로 1919년 3월 4일 동지 도인권(都寅權)과 함께 평양을 빠져나가 상해 임시정부로 가려던 중 평남 강동에서 일본 헌병대에 체포되어 1년 징역형을 언도받아 옥고를 치렀다.

그리고 선생은 평양 YMCA 총무에 취임하여 11년 동안 무보수로 봉직하면서 고당의 생애중 가장 활발한 사회운동을 전개하였다. 1922년 산정현(山亭峴) 교회 3대 장로로 장립되었으며 김동원(金東元)·오윤선(吳胤善) 장로와 함께 이 교회의 3장로로 20여년을 두고 평양 교회를 지켰다. 192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 민중의 경제운동은 조선물산장려운동·협동조합운동·소작쟁의·노동쟁의 등 여러 형태로 활발히 진행됐다. 전국적으로 확산된 이 물산장려운동은 3·1운동이후 민족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준 대표적인 운동으로 금주·금연운동·폐창(廢娼)운동을 포함한 절제운동을 수렴하였고 국산품 장려운동으로 구체적인 실천강령을 확립하였다.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 사람 조선 것으로”라는 구호와 함께 이 운동은 불과 1개월만에 전국적으로 퍼져갔다. 이 때부터 고당은 “조선의 간디”로 불리었다.

1932년 6월 경영난에 허덕이면서 내분에 휘말린 「조선일보」 제8대 사장으로 취임하여 민족언론지 육성에 주력하였다. 다시 평양으로 돌아온 선생은 많은 민간 사회운동을 계속 전개하였다.

1936년에는 마산에 내려가 오산학교 제자인 주기철(朱基徹) 목사(마산 문창교회 시무)를 산정현교회 목사로 청빙하였다. 1937년은 고당의 모든 사회적 활동이 일제에 의해 제동이 걸리기 시작하는 시기였다. 이듬해에는 교회에 대한 신사참배 강요가 노골화되었고 이에 항거한 주기철 목사는 수차에 걸친 검속으로 산정현교회가 수난을 겪게 되었다. 이 때 고당은 동료 장로들과 일치단결하여 교회를 이끌고 나아갔으며 끝까지 창씨개명을 거부하여 투쟁하였다.

일제 당국은 교회에서의 조만식 장로의 지도까지 금지하였다. 그래서 선생은 “내게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게 하고 발이 있어도 걸지 못

하게 하니 애국 애족을 하다보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만, 내가 죽은 뒤에 너희가 비석을 세우려거든 거기에 비문을 쓰지 마라. 그 대신 큰 눈을 두개 새겨 다오.” 그러면 하늘나라에 가서라도 한 눈으로 일본이 망하는 것을 보고 또 한눈으로는 조국의 독립을 보리라”고 당부하였다.

1944년 주기철 목사가 옥중에서 순교하고 교회가 강제로 폐쇄되자 고당은 울분을 삼키며 1945년 봄 식구들을 이끌고 강서 고향으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해방을 맞았다. 해방과 함께 평양으로 나온 고당은 8월 17일 조선전국 평남준비위원회를 조직하였고 위원장인 고당을 비롯하여 태반이 민족주의 또는 기독교 계통의 인사로서 구성되었다. 그 해 11월 3일에는 고당을 당수로하는 조선민주당을 창립하였다. 조선민주당은 발족한 3개월만에 50만 당원을 헤아릴 만큼 북한민중의 호응을 받았으나, 이 세력은 곧 그들의 철저한 탄압을 받게 되었다.

신탁통치 반대운동에 앞장서게 된 고당은 1946년 1월 5일 밤부터 평양 고려호텔에 감금된 후 선생을 구출하려는 청년들이나 고당을 방문한 미군청의 브라운에게 “나는 북한 일천만 동포와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심했었요” 하며 월남을 거부한 채 외로운 투쟁을 계속하였다. 어느 누구도 자세한 소식을 알지 못한다.

1970년 8월15일 대한민국 최고의 훈장인 국장(國章)이 추서되었으며 1976년 12월 7일 어린이대공원에 고당의 동상이 건립되었다. 1976년 1월 「고당 조만식 선생 기념사업회」가 조직되었고 매년 2월 1일, 「고당의 날」 기념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1984년 6월 12일에 서울 제동에 민족통일을 염원하는 5천만 민족의 정신적 기념관으로 「고당 기념관」이 마침내 건립되었다.

“나까지 이남으로 가면 여기 남아 있는 자유를 동경하는 수많은 대중은 누구를 믿고 살 것인가. 나는 그들과 같이 고통을 나눌 것이며 같이 이 땅을 지킬 것이다”라고 한 고당 조만식 선생의 말씀을 되새길 때 참다운 민중의 목자다운 선언이라 하겠다. 고당은 기독교인으로서는 민족주의자로서 지금도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신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일찌기 거룩하신 뜻이 계셔서 이 땅위에 우리 충현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32년간 은혜 가운데서 질적, 양적으로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게 하여주시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다윗 왕에게도 허락하지 않으셨던 새성전 건축의 귀한 사명을, 이 시대에 사는 저희들에게 감당케 하여주시신 크신 은총을 생각할 때, 한없는 감사와 더불어 맡은 바 사명의 막중함을 통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지난 1978년 기공예배를 드리고 공사를 시작한 지 5년이 경과하는 동안,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섭리에 힘입어 제1·2차 공사를 순조롭게 마치고, 이 나라가 선교백주년을 맞는 작년에는 미완성이나마 새성전에 입당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하오니, 저희들이 기도가 부족하고 정성이 미흡하여 아직도 건축공사를 마무리짓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헌당하지 못함을 생각할 때,

심히 부끄럽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불충한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 옛날 솔로몬에게 명하신대로 “너는 삼갈찌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의 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찌니라”하신 지엄하신 음성을 저희들 심령 심령마다 다시 한번 메아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충현의 새성전 3차공사를 위하여 훌륭한 좋은 일꾼을 보내주소서. 일찌기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공교하고 총명한 사람 히람을 비롯하여 15만 3천 6백명의 일꾼을 주신 것같이, 우수한 기술자와 성실한 일꾼들을 넉넉히 보내주시고, 또한 공사를 담당할 회사 위에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하고 충실하게 모든 공정을 진행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아름답고 웅장한 새성전 건축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사,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당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의 날을 하루 바빠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성전을 위한 기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만만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행위로는 마땅히 죽었던 죄인들이지만 주님이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는 은혜 만입으로 어찌 다 감사할 수 있사오리까. 특히 충현교회를 사랑하셔서 새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오니 감사를 드리오며 주님의 이적과 은혜로 일차 이차 공사를 마치게 하옵시고 또한 삼차 공사를 앞에 놓고 성도들의 할일을 주님께 아뢰옵니다. 주여! 충현의 성도들을 붙드시옵소서. 있는 것도 없게 하시며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주님 광야에서 어린아이의 손에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개가 보잘것 없지만 주님의 손에 들려 축복하시는 오천명을 먹이고도 열두광주리가 남은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손에 충현의 성도들이 도구로 들려질 때 삼차 공사는 완

공될줄로 믿사오니 광야의 제자들을 처럼 의심을 버리게 하시고 자신들의 행할 것만을 찾아 행하는 충현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배우고 일하며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옵시며 충현의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에도 축복하셔서 삼차 공사의 재정에도 풍족한 물질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공사에도 순조롭게 진행되어지도록 하옵소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에 전은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 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나 하시는 주님, 성도들이 이런 위치에 있지는 아니한지 주님께 물어보고 회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충현의 모든 성도가 주님께 매달려 간구하므로 성령의 은혜로 역사하시는 기적을 바라보게 하여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새성전 건축 제 3 차 공사를 앞에 놓고

새성전 마당에 서서 교육관과 선교관을 바라본다. 저 밝은 표정들, 어른 어린이 할것없이 크고 넓은 교회안에서의 움직임... 지난날 구성전에서는 볼수 없던 광경들이다. '본당마저 완성되었다면' 순간 주보 속의 작은 새성전 조감도가 실제의 큰 예배당으로 내 앞에 다가온다.

성전 건축이 갖는 의미

교회가 성장하면 건축해야만 한다는 것은 필연적인 과제이다. 그런데 성전 건축 중의 일부가 대형화되고 있을 때 교회 안팎에서 비난이 많았다. 그 비판의 대상 중에는 우리의 새성전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왜 예배당을 크게 지어야 되느냐에 대해 당회장님의 답변은 간단했다. "환자가 많으면 병실을 늘려야 하고 학생이 많으면 교실을 늘려야 하는 것처럼, 교인이 많으면 교회를 늘려야 하지 않겠느냐"하고, 새성전 건축이 완성되는 때, 분명히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북한선교, 세계선교의 센터로 한국교회에서 훌륭히 활용될 수 있으리라 본다.

성전 건축의 현실

"큰 예배당 짓노라고 충현교회 참 수고합니다. 선교100년에 또 이만큼 성장한 한국교회에, 그런 기념비적 성전 및 개는 있어야지요." 아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로부터 듣게 되는 인사말이다.



조 선 군

(장로, 3교구2지역장)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후세에 남을 성전을 건립하다 보니 큰 어려움도 따른다. 사실 믿음의 힘이 아니라면 극복할 수 없었던 것들이다. 더우기나 구성전터마저 매각 처분이 안된 상태에서 공사비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고충 등 말해 무엇하랴. 하나님 앞에 삼끄럽고 건축회사에 죄송함을 금할 수 없다. 이 일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당회장님과 앞장서서 일하시는 건축위원장님, 위원들, 실무진의 특별한 노고를 잊을 수 없다.

미담의 주인공들 되기 위해

오늘 우리는 3차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 큰 예배당을 짓는데 다소 지연될 수 있지 않은가, 저 유럽에 유명한 교회당들을 보라, 얼마나 오랜 세월동안 건립된 것이냐, 혹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 주변의 상황은 한국 교회적인 집회, 86년 88년 국가적인 큰 행사 등으로 서두르도록 우리를 재촉 한다.

그러므로 다음 고개가 아무리 높은 산처럼 보이더라도 주님과 함께 넘어가야만 한다. 한 사람이라도 낙오자가 생기면 안된다. 믿음이 약해져서는 안된다. 새성전 건축을 위해 충현의 모든 성도들은 어린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같이 생각하고 기도하며 힘써야 한다. 그래서 새성전 봉헌하는 날, 주님 기뻐하실 신앙간증을 할 미담(美談)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 보자.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치

이 세 열 (목사·민족복음화 연구소장)

서론

오늘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치 전도일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하고 이 세계가 죄로 물들었다면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문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면 정치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가지고 정치에 임할 때 그나라는 죄에서 해방되어 보다 밝은 나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혼탁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분간하기 어려운 어두운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젊은 세대에게 이것이 옳다 분명히 말하고 지도할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날 정치인들은 분명히 젊은이들에게 꿈을 심어주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목자없는 길 잃은 양같이 젊은이들이 헤메고 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의 잘못된 선전 자본주의의 모순들, 정치 방향을 잃은 민중에게 무엇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기독교는 길 잃은 세대에게 무엇을 주워야 합니까? 예수님은 오늘날 저희 세대에게 무엇이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그리스도는 개인 개인의 구주도 되시지만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도 되시는 것이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죄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 신본주의 정치를 하라

인간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고 일하는 것 당연합니다. 정치라고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만일 정치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진다면 이 나라에는 광명이 찾아올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요, 번영과 평강이 넘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 나라 정치가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편견과 인간 중심의 어떠한 야망을 위하여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죄악을 낳은 것이요 어두움의 세계가 올 것이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나라가 되어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본주의 사상을 버리고 신본주의 사상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만 알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인간에게는 형제도 없고 이웃도 없고 민족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불행한 인간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가서는 이웃을 사랑할 때 참다운 삶의 행복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온 나라 위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정치는 분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며 그러한 나라가 번영과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2.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이땅에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라고 예수님께서 기도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나라는 믿는 성도에게 주시는 내세의 축복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나라는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예수민고 죄사함받고 새사람된 성도가 어찌 죄악세상에서 그대로 보고만 있겠습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예수민은 신자가 정치인이라면 이 어두운 세상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혀야 될 것이요, 썩어가는 세상에 동화되어 같이 썩을 것이 아니라 소금의 역할 다하여 생명있고 깨끗하게 정결케 하여야 될 것입니다. 책임다하지 못하는 기독교는 버림 받습니다. 그러므로 빛과 소금의 직분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워 드려야 할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공의를 행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공의란 공평과 의로움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공평이 없고 옳은 것이 없다면 그 나라는 불평불만이 편만하여 진 것입니다. 법

은 만민에게 공평한 것입니다. 어떠한 부류의 사람에게만 유리하고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불리하다면 공평이 아닙니다. 공평한 정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정직과 성실이 살아나야 됩니다. 정직하지 못한자들이 정치를 하고 사회의 지도층으로 오른다면 누가 그 정치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믿을 수 있는 진실과 정직과 성실이 보여질때 국민은 따를것ियो,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실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힘쓰는 정치가 되여야 할것입니다.

3. 이웃을 내몸과같이 사랑합시다

예수님의 교훈중 가장 귀한 교훈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있는대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귀하게 여겨짐은 특별히 계명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사랑입니다. 사랑있는 정치, 사랑있는 세상, 사랑있는 사회, 가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무자비투쟁을 제창하지만 사랑없는 사회와 정치는 죽음의 동산을 만들것뿐입니다. 오늘날 공산주의국가들은 죽음의 동산 지옥을 이루워나가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축복도 사랑도 없는 땅이요 그러니 인권도 자유도 행복도 찾을 수 없는 동물들의 삶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주의나라에는 자유도 사랑도 행복도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나라로 형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정치는 사랑으로 넘쳐야됩니다. 사랑의 봉사가 있어야되고 사랑의 이해와 양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랑없는 무자비 투쟁은 인간을 불행하게 하며 원수되게 하며 다투게 합니다. 다투는 정치 분쟁과 모략과 증상과 시기과 음모등 멸망과 저주와 죽음이 따르게 되는것입니다. 정치는 모름지기 공정한법규와 선의의 경쟁속에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사랑이 있고, 이해와 양보가 있는 정치, 그것은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 갈것입니다. 정치는 사랑의 봉사를 보이며 사랑의 양보를 보이며 사랑의 본을 보여야 될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치는 사랑의 정치입니다. 사랑없이 정치하면 미워하는 정치요, 무정한정치요, 일부독재자들의 정치도 전략하고 말것입니다. 오늘날 세대는 독재자를 원치않습니다. 공산주의독재도 싫어하고 자본주의 독재도 싫어 하고 어떠한 독재도 싫어하지만 사랑의 통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정치는 세계를 구원하고 광명

을 가져다 줄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치는 그리스도의 계명을 본받아 사랑의 정치를 하여야 될것입니다. 이웃을 내몸과 같이 사랑하는 정치를 하여야 될것입니다.

결 론

한나라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잘 할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교훈이요 옛사람들의 교훈인 것입니다. 하늘의 도움이란 곧 하나님의 축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예수를 믿는 성도의 수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번영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와 국가적으로도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가장 부강한 나라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께 기원하는 기도가 여러차례 나옵니다. 축복하시기 때문에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천지만물을 주장하십니다. 인간의 생명도 행복도 주장하십니다. 국가의 권세도 번영도 주장하십니다. 모든것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우리 중현교회는 국가의 번영과 발전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보다 더 하나님앞에 복받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나라 정치인들이 하나님앞에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정치, 하나님의뜻대로 하는 정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 하는 정치를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번 국회의원에 당선된 분들은 개인의 욕망이나 사리사욕을 위한 선량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직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중현교회는 동양에서 가장 큰 예배당을 짓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전인것입니다. 수억의 돈이 개인의 명예와 국가민족을 위해 바쳐졌다면 그것도 아름다운 일이지만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예배당 건축을 위하여 바쳐졌다면 그것은 더욱 아름다운 일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국가민족위에 넘칠것입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않게 하소서

송 환 창 (장로·당회 부서기)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말라”

(갈 5:1)

우주를 주관하시며 인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유난히도 춥고 긴 겨울이 물러가고 또다시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을 주시오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광복40년이 되건만 우리는 3월을 맞이할 때마다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겪었던 슬픔과 고통을 쉽게 잊지 못하는 반면, 독립만세를 외치던 선열들의 항일의거의 정신을 결코 마음속에서 지워버릴 수가 없아옵나이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흑암에서 살 때에 주의 부르심을 입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속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유를 은혜의 선물로 받게 된 기이한 구원의 체험을 얻었사오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에 오직 찬양과 영광을 돌릴 뿐이옵나이다.

먼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강산을 공산당의 마수에서 지켜 주시옵기 원하오며, 일본의 어떠한 재침략기도도 저지할 수 있는 자유수호의 의지를 더욱 굳게 지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아가 불의와 부정과 부패에서 자유케 하여 주셔서, 참다운 정의 사회·복지국가를 이루어 평화와 자유를 구가할 수 있는 은총도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한국교단 위에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수치로 얼룩진 지나간 교회사를 모두가 겸허하게 반성하면서, 교권과 세속주의의 굴레를 과감히 벗어버리고 회개와 용서와 화해로 교단이 일치하는 날도 주시어서 선교 2세기의 역사적인 새장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는 진리시니, 우리가 진리로 자유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또한 총현교회 위에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온성도가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안일과 물질만능의 사슬을 끊고 믿음과 사랑에 굳게 서서 천국일꾼을 양성하며, 북한선교와 민족복음화, 세계선교의 큰 목표가 달성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에 보이는 성전도 속히 건축하여 우리의 심령속에 하늘나라의 소망이 차고 넘치는 축복도 주시옵기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총현에 속한 성도들이 다시는 죄와 멸망과 죽음의 멍에를 메지않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참된 신앙인의 내적, 영적 자유를 누리고 양심과 진리를 좇아 생활함으로써 의의 열매를 맺어 영생의 복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지상명령



강 은 원

(장로·제2남전도회 부회장)

마태복음(28장 19~20)에서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찌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총현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에 큰 은혜가 되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으로 부터 인정 받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 말씀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세례를 베풀고 교육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 전파와 세례와 교육은 불가 분리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 분부의 말씀은 초대 교회의 오순절 성령 충만 이후에 실현되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복음전파를 생각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복음을 증거함에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고 말했습니다. 이 복음 전파의 분부에는 전도의 대상을 가리지 말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의 복음전파에 대한 실천이 어떠한가를 이 말씀에 비춰 보아야 할 줄 압니다. 그리하여 우리교회 5대 목표중 4가지가 이 말씀에 근거가 된 것같은데 얼마나 하나님의 기록하신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실천해 나갈지 온 교회가 기도하

는 중에 겸손하고 침착하게 이 사역에 참여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 압니다.

특히 우리 개개인들의 생활 자체가 이 복음 전파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는 믿음의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세례를 주라는 명령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씨를 뿌리면 열매를 거둬야 합니다. 세례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신앙고백을 인치는 예식으로 친히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서 보면 믿는다고 하면서 세례를 회피하는 많은 성도들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하여야 할 것입니까? 사도행전(8장36절)에서 보면 빌립에게 전도를 받은 내시가 자원하여 세례를 받은 것을 발견합니다.

여기 자원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여야 할 줄 압니다.

결코 강제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세례받은 자만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는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잘 교육이 되어야 하는 줄 압니다. 씨를 뿌린 후에 가꾸고 열매 맺게 하여 거두어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일 학교 고등부 이상 모든 학생들은 전원 세례 교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교회의 교육적 사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즘 너무나도 혼탁하여지고 있고 죄악이 만연되어지고 있는 마차 소동과 고모라의 멸망시를 방불케 되어지고 있는 이때 특별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쉬워지는 이때 먼저 신학교육이 바로 이루어져 훌륭한 목회자들이 배출이 되어야겠고 침체상태에 있는 교회 교육의 중요성과 발전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한 각성을 요구하는 것인 줄 압니다. 말로만의 천국 일꾼 양성이 아니고 정말 참된 일꾼을 양성하는데 온 교회가 기도와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이 교회 교육의 발전과 혁명이 없이 교회 부흥이란 좀 어렵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 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열심히 전도하고 성례를 베풀고 교육적 사명을 잘 이행함으로써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하늘 나라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우리 교회와 개개인들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내 눈을 들어보게 하소서

김 정 자

(집사·초등부 부감)

○선생님

저보다 훨씬 많은 연륜을 가지시고도 만나시면 공손히 인사받아 주시는 당신에게서 예수님의 겸손을 배웁니다.

그리고 언젠가 처장일을 맡아 달라고 했을 때 되려(?)시켜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신 Y선생님, 그 이후 전 많은 것을 생각했지요. 일이 주어질 때마다 입에 붙은 '못해요'를 연발하던 나를 참 쓸쓸한 시간이었지요.

어려운 일이어서 어떻게 할까하고 어렵게 말 씀드리면 항상 그 작은 눈으로 활짝 웃으시며 아! 합시다. 하시며 힘을 주시는 K선생님, 그때마다 그 작은 눈이 그렇게 예뻐 수가(실례)……. 한때는 참 부럽던 쌍꺼풀눈이, 당신의 눈을 볼 때는 나도 눈이 저렇게 작았으면 더 좋을 지도, 하고 생각한 적도 있었지요.

기쁘고 즐거운 일이 많아서 미처 두눈이 자라지 못했다고 익살부리시던 모습은 항상 보는이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지요.

일을 하다보면 이런 저런 좋지않은 남의 얘기도 나오려만 한번도 남의 얘기 입에 담지않으시는 딱대구리 선생님.

언제나 밝은 얼굴, 진취적인 태도, 템포 빠른 말씨는 듣는이로 하여금 '젊음'을 느끼게 합니다. 작년 수재때엔 남매를 잃어버려 허탈에 빠졌던 당신의 모습에서 다신 밝은 웃음을 못보는가 싶더니 믿음적은 저희 기도 들어주신 하나님 고마와요.

당신에게서 생활에의 열심을 배웁니다. 작은 채구의 S선생님의 목소리에서 기도하는 음성을 듣지요. 사무엘의 기도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는 음성도 듣구요, 걸음마 하시는 Q선생님에게서 솔직하고 순진함을 배우지요.

직장에서 하도 전화가 많이와서 아예 전용으로 전화한대를 놓아줄 정도로 상사의 인정을 받으시는 C선생님, 샤벨남버 화이브보다 더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당신앞에서 난 항상 서두르고 말을 더듬고 화제가 걸돌지요. 어쩔! 어쩔!

예수님! 참 좋은 냄새죠? 그죠?

근데요, 아직 외톨이예요. 저한테만 살짝 가르쳐 주시지 않을까요? 비밀지켜요. (언젠가요?) 진짜 진짜 천국에 오리지날인데……. 근대 요즘 좀 아프시대요. 건강주세요.

생각만해도 달려가 안겨서 머리광 부리고싶은 J선생님, 내 큰 이 덩치가 안겨도 좋을만큼 넉넉한 채구, 웃으면 숫제 눈이 없어지는 두눈. 뭐든 다 들어주실것 같은 친정엄마같은 당신에게서 인자를 배웁니다. 모나리자가 무색한 미소. 예수님! 이 가정에 '이삭'을 주시요. 어려움속에서도 긍정적인 신앙을 보여주는 A선생님, S선생님에게서는 순종을 배웁니다. 무조건 순종에 무조건 축복을 주시나봐요.

만날 때마다 우리 아들들도 저렇게 자란다면하고 느껴지는 Z선생님, 당당한 믿음의 모습 위에 자리잡은 겸손.

볼 때마다 연민의 정을 느끼게하는 큰눈의 X선생님, 이젠 어엿한 아빠가 됐지만 피붙이같이 느끼지요. 몇년간 겪으신 슬픈 어려움 하나 하나가 생생하게 되살아나고 그때마다 가슴이 메이고 저리지요. 하지만 이젠 인내의 열매의 맛이 어떤 것인지 아시죠? 당신의 뒤에서 계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봅니다.

제게 많은 거울을 주셨어요. 교사하기 싫어 목사님의 눈을 요리 조리 피할 때 '너 자신을 위해 교사하라는거야!' 하시던 화나신 목사님의 음성이 아직 귓전에 남아있지요. 인제사 조금씩 알것 같은 둔재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거울을 볼때마다 나 자신이 초라한지 그 슬픈 시름의 날들. 예수님 바라고 힘있게 쫓구치고 싶은데 제 체중이 너무 무거울걸요. 확실히 다이어트해야죠?

자신이 없어요. 하지만 있잖아요. 도와주신다면서요! 믿어요.

역삼의 언덕위에 아 - 예루살렘 성이여!

한 영 선

(집사·2 교구신사 3 구역장)

그 웅자 앞에
여호와를 찬양하나이다

× ×

일찌기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에 충현을 주셨고
여기 거대한 성벽을 올라가고
참아 다윗에게도
주하지 않았던 복을
솔로몬이 보다도 더 풍성하게
충현에 허락하신 여호와여!
아 - 땀과 눈물과
피와 진액을 다 쏟으리라

× ×

이제 24시간
기도의 문은 열리고
동서팔방에서 달려오는 걸을걸을마다
간절함이 줄을 잇고
찬송은 사무쳐
눈물이 솟구치는데
정녕 이 기도의 함성은
1만여 성도의 가슴을 돌아돌아
천상에 메아리 치리라
그래서 하늘보좌가 움직이리라

× ×

내 기도의 시간이 길다고
푸념을 늘어 놓던 못난이가
그 밤에 달려간 기도의 성산에서
밤이 맞도록 가슴치며
오 - 주여!

황량한 갈보리의 십자가로
갯새마네 피눈물로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던
그 인자하신 눈길로
저를 감싸 주시옵소서
다시는 다시는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않으리이다.

먼 - 옛날
바벨론의 강변에서
그 시온을 바라보며
얼마나 울었든가!
그 애탄 소망의 열기로
마음의 성진부터
우리 함께 건축하리라
그리하여 야훼 여호와께
결단코 봉헌할 것을.....

× ×

온 세상이
다 -
충현을 험난하여도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되시니
믿음의 전진 또 전진
기여코
역삼의 언덕 위에
저 - 예루살렘 성보다
더 찬란한
충현의 성을 완공하리라

× ×

정녕
이곳은
세계를 향한
선교의 센타
복음의 진원지
아니라 평화통일의
초석이 되리라

× ×

오늘도
새벽 제단에
백말이 성성하신
목자의 울부짖는 기도를
여호와여!
불꽃같은 눈으로
지켜 주옵소서!!

“날 위하여 날 위하여”

이 찬송은 「호레이시어스 보나」가 작사하여 1844년 발행된 그의 「광야의 노래집」 제2집에 실었던 찬송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형님과 같은 분으로 생각하고 쓴 찬송이다.

원래는 존 로빈슨 스웨니의 곡과 결합되어 불리우던 것으로 4행시 4절에 후렴을 첨가하여 사용했으나 우리 찬송가에는 후렴을 삭제하고 4행시 4절을 2개절씩 합하여 8행시 2절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으며 작곡은 찰스 콘버스가 했다.

1821년 「보나」박사의 부친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말형 제임스가 아버지가 하시던 일을 다 감당하였는데 어찌나 자상하고 다정하게 동생들을 돌봤는지 보나 박사의 마음에 큰 감동을 준것 같다. 그러기에 주님의 돌보심을 형님의 다정한 돌보심으로 돌보시며 무거운 짐과 모든 두려움을 함께 감당하신다고 하였다.

그러나 주님의 돌보심이야 어찌 형님의 사랑이나 돌보심에 비하랴.

단지 보나 박사의 형 제임스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으로 돌봤기 때문에 형님의 사랑이라기 보다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구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우기 19세기 말의 찬송가 해설가인 존 브라운리 목사는 보나 박사의 형 제임스에 관하여 “기발한 개성과 진가를 지닌 인물”이라고 평했으니 보나 박사가 감명을 받을만 하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벧전5장7절)

또 이찬송은 인정적인 찬송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를 다니러 갔다가 올 때가 되면 무척 기다리게 된다. 이와같이 작시자는 주님의 돌아오심을 기다림으로 노래하며 천성길을 간다고 했다.

이토록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새아침이 즐거울 수 밖에 없고 인생의 황혼이 평화로울 수

밖에 없다.

사우디의 어떤 건설 현장에 세워놓은 안전 표어판에 “아빠 조심하세요”란 말을 써놓은 것을 보았다.

그것을 보는 기능공마다 고국에서 기다리는 부인과 애들 생각때문에 가슴이 뭉클해지며 조심해서 장비를 다루게 된다는 것이다.

이사야 3:13 “여호와께서 변론하려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라고 예언하였는데 이는 우리 주님에 대한 예언이요 이 말씀이 바탕이 되어 있고 이사야 53장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만백성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실 것을 이사야 선지가 예언한 글인데 12절끝에 보면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중 하나로 해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고 하였는데 이 모든 고초와 지칠줄 모르는 사랑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여기에 시온소가 나오는데 이는 출애굽기 25:17절에 있는 속죄소를 말함이요 25: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케 위에 있는 두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한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라고 하였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얹아 계시는 시온좌결에서 우리를 위하여 쉬지않고 빌고 계신다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위하여 쉬지않고 빌고 계시니 참으로 지칠줄 모르는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라.

(찬송가 426장)

- 편집실 제공 -

우리의 기도

인도네시아(서만수선교사)

• '84년 한해동안 장년 322명과 어린이 58명이 결신하였고, 93명에게 세례를 베풀었음.

• 한인교회 여성교회와 할렐루야 골프회에서 성탄절을 맞이하여 오지 사역자 15명에게 타자기 한대씩을 선물함. 어려운 가운데 오지에서 수고하고 있는 사역자들의 감사와 기쁨에 찬 문안을 후원해주시는 동역자들에게 전해 음.

• 지난 해 고국 거제도의 방하고회(박충기 목사 시무)를 지원한 것을 계기로 오지 선교제15주년을 맞아 금년에는 제3 선교지로 이스라엘 김주경 선교사의 지원과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디오피아의 형제들을 위해 후원하기로 결정함.

• 오지 사역의 동역자들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 회교도의 중국인과 교회등에 대한 폭행과 방화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선교 사역을 위해 특별 기도를 부탁해 오심.

- 기도 제목 -

• 선교사 부부의 건강과 성

령의 지혜와 권능 충만을 위해서.

• 한인 교회의 부흥과 발전 및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뜨거운 헌신을 위해.

• 인도네시아의 정치 사회의 안정과 선교사들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서독 (육호기 선교사)

• 구역장과 제직으로 수고하던 일꾼들이 미국으로 진출되어 새로운 신자들로 구역을 정비하고 구역장들을 새로 세움.

• 폭설과 한냉 기후로 하나무 및 뷔츠브룩 교회의 버스가 고장나고 노후화된 관계로 사용 못하고 있으므로 많은 원거리에 사는 교우들이 예배 참석을 못하고 있음. 이를위해 특별 기도 바랍.

- 기도 제목

• 선교사 가족의 건강과 성령 충만한 가운데 평안하시도록.

• 한인 교회의 부흥과 발전 및 새로운 직분자들의 헌신적인 봉사를 위해.

• 폭설과 강추위 속에 교통편 안보해 주시도록.

• 유럽 및 독일인 복음화의 전진과 유럽 노회의 발전위해.

애굽 (이준교 선교사)

• 1월6일 카이로 한인교회 신년도 제직 임명식을 가짐(권사 1명, 서리 집사 5명)

• 1월13일 바라지 복음주의 교회를 방문. 주일 낮예배 설교 및 바라지 탁아소를 위한 구제금 백 파운드 전달.

• 1월18, 19일 카이로에서 4시간 거리에 있는 포트 사이드에서 예배를 드림.

• 1월 22일 자이툰 복음주의 교회 방문. 부슈라 아사드 목사와 넝마주의촌 프로젝트 협의하고 지원금 200파운드 전달.

• 2월26일부터 3월 27일까지 싱가포르 학개 선교원의 초청을 받고 선교 훈련 및 업무 협의차 참석 중임.

- 기도 제목 -

• 선교사 부재 중의 가정과 교회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

• 한인 교회 및 각 예배처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 원주민 개척선교의 성공과

확장을 위해, 특히 수단 선교의 길이 어서 속히 열리도록.

파라과이 (김재창 선교사)

• 1월14-16일 조천일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신년 부흥성회를 가짐.

• 1월중 주교 교사 강습회와 고등부 하기 수양회록 가짐. (35명 참석)

• 1월25일 파라과이 교역자 협의회를 창설. 초대 회장에 피선됨.

- 기도 제목 -

• 선교사와 가족의 건강과 자녀 교육 및 장래를 위해

• 원주민 선교 사업의 성공과 확장 및 후원자들의 활발한 참여를 위해.

• 파라과이의 사회, 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 교회의 증축을 위한 설계와 모든 준비가 순탄하고 형통하시도록.

• 1월1일 구라과 한인선교회(서독) 신년예배를 드림.

• 1월13일 브라셀한인교회 공동의회를 은혜가운데 마침.

85년도 신앙월력을 한인교회 성도는 물론 대사관과 전도대상 한국인 및 외국선교기관, 선원선교교회등에 기도중 배부.

- 기도제목 -

• 선교사와 가족의 건강과 자녀의 학업을 위해

• 한인교회와 외향선 선교및 선원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 현지인 및 유럽의 복음화 사역을 위해

이스라엘 (김주경 선교사)

• 성탄선물과 담임목사 취임축전에 감사소식과함께 지난 1월13일 예루살렘한인교회 취임예배 소식과 사진자료를 보내주심.

• 작년 연말 성탄절을 맞이하여 베들레헴에서 개최되었던 합창제 소식도 함께 보냄.

- 기도제목 -

• 선교사 가족의 건강과 영력 충만을 위해

• 예루살렘 한인교회의 안정과 부흥 및 성도의 성령충만과 행동을 위해

• 성지연구소의 조속한 설립과 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위해

• 성지 방문자 및 순례자들의 전도와 올바른 신앙성장을 위해.

홍콩충현교회 (치용 목사)

• 예배당 및 선교교육관 확장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4월6일 바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

• 3월19일(화)부터22일(금)까지 김창인목사, 장정일 목사를 모시고 선교 부흥회를 개최하기위해 기도중.

- 기도제목 -

• 선교사와 가족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

• 홍콩충현교회의 안정과 부흥 및 성장을 위해.

• 계획중인 선교부흥회 및 선교바자회의 성공을 위해.

인도 (엘리아 겔간 선교사)

• 샘터에서 회교도 지도자와 형식적인 종교에 대한 대화를 나누면서 전도할 기회를 가짐.

• 프랑스 인류학자의 영국 국영방송(BBC)에 발표한 현지보고서를 보고 영국인 의사가 티베트 성경 110권과 300권의 신약성경을 보내옴.

• 부탄에서온 "림포체" (재성육한 구주라는뜻)라는 불교의 지도자에게 성경주고 전도함.

• 수직센타, 퓨리그어 성경번역사업, 실험농장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차차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

• 장남 안드레아스군이 충현성도 여러분의 기도로 기적적으로 소생한데 대해 감사드리며, 지난해 10월22일 르우벤 커메드군 득남으로 받은 하나님의 위로를 찬송함

- 기도제목 -

• 앤디(장남)의 회복과 르우벤군 득남감사와 함께 선교사 가족의 영육간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

• 선교사역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칠레 (유재일 선교사)

• 한인 연합 교회의 성가대원 30명 및 교사 19명을 임명.

• 칠레의 고아원 후원 기관에 구호품 100점 기증함.

- 기도 제목 -

• 선교사의 가족의 건강과 영적충만을 위해.

• 한인연합교회의 주안에서 질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 새성전 건축의 순조로운 진행과 재정해결을 위해

• 칠레의 원주민 사역을 위해

벨기에 (김성완 선교사)

하나님나라가 확장되도록

• 선교사역을 도와줄 유능한 동역자와 후원자들이 나타나도록

• 인도 선교를 후원하는 뉴욕 빌립보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일본 (유병세 선교사)

○ 1월1일 포하전도소에서 궁도목사를 모시고 신년에배를 드림.

○ 1월20일 광미교회에서 시편90:1~12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맘을 열게 하옵소서” 설교 은혜받고 코이노니아를 가짐.

• 진료소에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계속 은혜중.

- 기도제목 -

• 선교사 부부의 건강과 영적인 성장을 위해

• 의료진료 활동의 책임감과 교포 선교의 확장 및 일본의 복음화를 위해.

• 국내에 남아있는 자녀 가족들의 신앙의 성장과 가정의 평안과 축복을 위해.

라성총현교회 (정상우 목사)

• 새로이 애굽 선교지를 돕고, 국내 개척교회 후원교회를 늘리는등 금년부터 선교사업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정.

- 기도제목 -

• 선교사 가족의 영육간의 건강과 자녀들 학습을 위해서

• 순조롭게 성장하고있는 교회가 더욱 부흥발전되고 세계 복음화의 큰 역할을 감당하도록

털시총현교회 (강성진 목사)

• 800여명의 교인들이 한복을 입고 한국말로 찬양드리며 촛불예배를 털시총현교회와 존나스장로교회가 연합으로 예배드릴, 이로인해 완고했던 미국 중부 사람들이 한국을 이해하는데 계기가 됨.

• 1월1일 새해 축하예배를 드림. 이국땅에 살고있는 동포들에게 고국에 대한 향수심과 애국심으로 교회에모여 자신들의 신앙을 성장시킴.

• 2월 하순경 부흥사경회를 열기로 결정, 준비중

- 기도제목 -

• 강성진목사와 가족의 건강과 자녀의 학습을 위해

• 교회가 전도할 수 있는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 교회대지의 추가 매입과 조속한 성전 공사를 위하여.

뉴욕총현교회 (박종만 목사)

• 박종만목사 출국수속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가운데 이주수속을 완료하고 여권을 받았으며 전 가족의 건강진단도 무난히 통과됨.

• 3월7일 미 대사관 최종 인터뷰 한 후 파송예배를 드릴 예정임.

- 기도제목 -

• 박종만 목사 가족의 출국 절차가 순조롭게 마쳐지도록.

• 교회의 안정과 부흥 및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과 생활의 풍족함을 위해.

• 설교해 주시는 손계웅목사의 말씀과 권능충만을 위해.

본부소식

• 2월 첫주간에 선교주일헌금을 작성한 선교회원들의 카드를 정리하여 비치함. 선교소식과 자료를 정기적으로 알리고 회원의 참여의식을 높이는 데 활용할 계획임.

• 2월10일 브라질에 가신 박동실 목사로부터 총현성도들이 보내주신 크리스마스 선물에 감사하는 문안편지 도착. 전도의 어려운 여건하에서 30명 가량 모이는 교회로 성장했으며 현지에 관한 귀한 소식들을 주심. (또한 성경교육자료와 2세의 한글교육자가 없어서 후원의 손길을 기다리며 애타게 기도중)

• 외무부 선교회에서 본 교회 김창인목사 설교테이프를격주 100개씩을 지원 요청해옴.

• 2월17(주일) 월례회를 본부 사무실에서 갖고 홍콩선교바자회 및 선교 특별 후원에 관하여 논의함.

• 2월10일 위클리 성경 번역 선교회 김동화 선교사를 모시고 2월 선교 특강을 가짐. 1월중 성경 번역 선교훈련에 참석했던 김재호씨의 간증도 있었음.

• 2월17일 유병세 집사 부부의 전도를 받고 일본 히로모 교회에 다니다가 삼뿐로로 전출해 나가신 권 집사께서 인사차 본부 방문.

• 2월24일 홍콩총현교회의 최병현 집사의 본부방문, 현지 선교현황 소식 보고.



교회소식

85년도 교회 심령부흥회

4월 8~13일 강사 길자연목사

85년도 교회 심령부흥회가오는 4월 8일부터 13일까지 본 교회당에서 개최된다.

부흥회를 통한 교인 신앙 향상 및 교세배가, 그리고 교구활성화 및 3차 공사를 위한 건축헌금 모금을 위해 개최되는 이번 부흥회는 새벽, 낮, 저녁시간으로 진행된다.

예배위원회를 주축으로 기획조정실, 전도위원회, 교육위원회, 성가위원회, 구역원찰회, 봉사위원회, 사무국이 협조하는 등 부흥회의 주강사는 길자연목사(서울 신림동교회 시무)이다.

70인전도요원 훈련 3월14~5월2일

제 4기 70인 전도요원 훈련이 오는 3월14일부터 5월 2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4시 교육관 201호실에서 개최된다.

지역장, 부지역장, 구역장, 권찰들을 전도요원화하여 교회목표인 1만세대 1천 5백구역을 확보 달성하는데 교육목적이 있는 동교육은 전도위원회가 주관하게 되었다.

구역권찰회 헌신예배

구역 권찰회 헌신예배가 지난 2월 24일 오후 7시 본당에서 드려졌다.

이날 예배는 구역권찰회장장정일목사 사회로 진행, 박영식 집사(동회 서기)의 기도, 성경요 8장 31~36절 봉독후 교구권사 찬양대의 찬양이 있었다.

신성종목사가 「참 자유를 얻으려면」이란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교구교역사 일동의 특송도 있었다.



☆ 지난 2월 24일 있었던 구역권찰회 헌신예배에서 찬양하는 교구권사찬양대의 찬양모습.



☆ 전도위원회가 주최한 주교지도자 초청간담회

주교지도자 초청간담회

전도위원회(위원장 정석태 장로)가 주관한 주일학교 16부 지도자 초청간담회가 지난달 있었다.

학원전도의 효율적인 전도방법과 활동모색으로 주일학교의 양적부흥과 질적인 전도전략을 수립키 위해 각급 주교 부장과 지도교역자 32명을 특별 초청하여 각 부서의 새해 전도전략과 주교 교사의 전도훈련 관계 등을 모색했다.

그뿐 아니라 새로운 전도방법을 탐색하며, 서로의 과제를 발표하므로 학원전도에 대한 유익된 좌담을 가졌다.

3.1절 구국성회 성황 북한 선교원 주최

사단법인 북한선교원(이사장 김창인 목사)이 주최한 3.1절 구국성회가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일까지 본교회당에서 성황리 집회를 가졌다.

전국에서 약 2천5백명의 회원이 참석한 동 구국성회는 “북

녘땅에 잃은 형제 복음으로 다시 찾자”란 주제로 간절한 기도와 나라 사랑을 다짐하기도 했다.

동 구국성회의 강사는 김창인 목사의 4명이었다.

충현 성경연구원 개강

충현 성경연구원 85년도 제 1학기 개강예배가 지난 3월 2일 오후 6시 교육관 212호실에

서 드려졌다.

「성숙한 성경선생 양육」을 주제로 실시되는 주간 성경공부에서는 창세기를 비롯하여 타가, 마태복음 연구와 신구약개론, 에베소서, 시편, 사무엘상하, 로마서를 공부하게 된다.

당회장 김창인 목사는 성경을 배우자고 강조하면서 「성경을 배워 깨닫고 생활에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야말로 성도의 신앙생활의 시작이며 동시에 결론」이라고 밝혔다.

오는 6월 29일까지 1학기가 끝나게 되는 동 성경 연구원의 교수진은 다음과 같다.

김창인 목사, 김희보 목사, 임종만 목사 등 여러분이다.

위탁교회 교역자 초청세미나 개최

지교회 및 위탁교회 교역자 초청세미나가 오는 3월 26~27일 충현기도원에서 개최된다.

약 40여명이 초청되는 동 세미나엔 21명의 대상교역자와 남여 지원부서 대표 및 전도위원 19명이 참석케 된다.



☆ 3.1절 구국성회모습(북한선교원주최)



전국영아부지도자 교사수련회성황

교육위원회(위원장 조영길 목사)는 제7회 전국영아부 지도자및 교사수련회를 지난 2월 25~26일까지 영아부실에서 가졌다.

「말없는 교육이 가능하다」란 주제로 개최된 동 수련회는 개회예배를 엄필성 영아부 부장 사화로 진행되었다. 최성현 장로(교육위원)기도, 지도자 교육원생 일동의 특송, 성경 딛 후 3장13~17절을 봉독한후 교육위원장 조영길 목사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2부엔 찬송및 율동이 있었

고, 3부엔 정소영전도사(영아부 지도)의 특강이 있었다.

둘째날엔 오후 2시부터 정소영전도사의 「문제를 통한 교육」이란 제목으로 특강이 있었으며, 오후7시에는 김상규부감 사회의 예배가 있었다.

정하우장로(교육위원)의 기도, 영아부 교사 일동의 특송, 성경 로마서 2장 17-19절을 봉독한후 「하나님의 언약」이란 제목으로 김창인목사(당회장)가 설교했다.

모범구역원 표창

구역권찰회(회장 장정일목사)는 지난 2월3일 구역권찰회 시간에 본당에서 모범구역원

표창식을 가졌다.

이날 표창을 받은 성도는 9교구 자양5구역의 정순자집사로 3세대를 전도하여 교회에 등록시켰다.

남여전도회초청간담회

남여전도회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가 3월 첫주 금요일 전체 철야기도회시 선교관 304호실에서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남여전도회 3월중 전도 실시및 회원확보와 지원사업에 대하여 그리고 지회 회원 확보 비결책등에 구체적인 의논이 있었다.

교역자전화 변경

교역자 사택의 전화가 변경되었다. △2교구 이진희전도사 553-6993번 △3교구 유순화전도사 553-6994, △1교구 장영자전도사 553-6995번.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신 교우는…”

신앙생활의 첫 발을 내딛는 분이나 교회생활을 해온 분중에서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고자 원하시는 분에게 기본적인 구원의 도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관하여 매주일 2부예배후 11시30분 교육관 212호에서 6개월 기간으로 공부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치 못하는 분을 위해서는 통신으로 공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교육과정을 마치신 분은 학습을 받게 됩니다.

(새신자부)

각종통계

1985년 2월 10일기준

구 분		남	여	계	구 분		남	여	계
출석통계	예 주일낮	1부 140	260	400	주일학교	중 등 부	280	241	521
		2부 710	1,300	2,010		고 등 부	163	162	335
		3부 730	1,100	1,830		대 학 부	59	65	124
		4부 260	570	830		청 년 부	80	83	163
		계 1,840	3,230	5,070		중 년 부	17	46	63
주일학교	주 일 저녁	310	490	800	학 교	장 년 부	56	302	358
	삼 일 저녁	120	260	360		소 망 부	50	137	187
	영 치 부	183	169	352		직장전도교육부	23	44	67
	유 치 부	181	177	358		새 기 정 부	24	41	65
	유 년 부	155	150	305		새 신 자 부	47	123	170
	초 등 부	188	176	364		새 례 부	20	78	98
	소 년 부	192	208	400		합 계	3,988	6,182	10,170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85년도에는 귀하께서 대단한 결단을 해 주셔서 교회내의 자원봉사자로 등록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귀하의 결심이 잘 성취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 봉사위원회는 많은 분들의 자원봉사 등록신청서를 각 분야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계속하면서 그때 그때 자원봉사자들이 교통정리, 월간충현 발송작업, 기타 봉사에 적극 협조해 주심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분류작업이 마무리 되는대로 귀하가 필요로 하는 봉사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봉사여건을 마련할 것이며, 교회가 요구하는 모든 사업들에 귀하의 값진 헌신을 요청하게 될 것입니다.

귀하가 몸된교회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그 댓가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금년 처음으로 신설되어 운영되는 봉사위원회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로 협조해 주시고 봉사위원회 연

락이 있을 때에는 지체하지 마시고, 기쁜마음으로 봉사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여러가지로 고맙겠습니다.

바라기는 저희 봉사위원회실(선교관 201호)에 꼭 들려주셔서 서로 위원들과 인사도 나눠 주시고, 좋은 정보도 제공해 주시고, 한걸음 더 나아가서는 성도의 교제도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여러분의 방문을 쌍수들어 환영할 것이며, 기대에 부응하게끔 교회봉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좋은 소식이 피차 오고 가기를 기대하며 우선 지면을 통하여 인사를 드립니다.

주안에서 건강하십시오.

주후 1985년 2월 24일

충현교회 봉사위원회 위원장 박치민 장로



□이름없이 빛도없이□

월간충현은 이름없이 빛도없이 교회봉사자에 앞장서는 성도들을 찾아 그들의 봉사활동을 소개하기로 했다.

교통정리하는 최 대주 성도



눈이오나 비가오나 바람이 불어도 매주일 아침 9시 10분엔 교회당 입구에서 차량 정리를 하고 있는 진장한 청년이 있다.

이곳 역삼동 교회당으로 이사온 날부터 1번의 여름휴가(1주일)를 빼고는 계속 봉사하고 있는 이분의 이름은 최대주(35세, 2교구 논현구역) 씨이다.

그는 2부예배에 맞추어 오는 성도들의 차(승용차 및 봉고, 버스) 1백50여대를 안전지역으로 유도하면서 질서정연하게 주차시키고, 예배에 지장이 없도록 안내하는 일을 맡고 있다.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고, 자원하여 봉사하고 있는 최대주씨는 "저같은 사람도 여기서 일할 수 있는 보람을 느낀다"고 말하고 "이 일을 통하여 많은 교역자와 평신도들을 알게되어 너무 감사하다"고 수줍어 한다.

많은 차가 왕래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무척 벅차게 느낀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있는 최대주씨는 약10명정도의 자원봉사자가 힘을 합해준다면 일하는데 큰 보람을 느끼겠다고.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최대주성도는 "교인들이 차를 주차시킬때 조금만 신경 써주면 어려움이 해소되겠다."고 말했다.

3 월의 교우동정

새교우

개나리구역 역삼구역 노현구역 봉안구역 부전구역 미천구역 마선구역 신당구역 청담구역 개포구역 압구정구역 시흥구역 시흥동구역 용두구역 중심구역 길동구역 자양구역 역삼구역 개포구역 논현구역 가양구역 용두구역 용두수구역 성현구역 삼성구역 역삼구역 동현구역 심곡구역	박영관 하영수 안병욱 이부금 최복순 최미애 주소명 이화숙 최수자 강우권 김영아 권태홍 최경숙 윤명옥 정인용 윤인순 공봉식 정정란 김금희 이계희 이경미 박도근 박상규 이인순 김옥엽 임찬희 장순녀 김건수 김명석 김종배 양길산 강봉원 유재문	하월곡구역 동자구역 행사구역 행도구역 동문구역 창안구역 광명구역 성남구역 자양구역 개포구역 논현구역 봉우구역 적선구역 목동구역 명일구역 정금구역 문암구역 개포구역 논현구역 당신구역 정릉구역 길동구역	김은혜 박남순 배연태 이창수 서미영 장갑철 이명건 오정자 김성자 우희복 권순각 장경전 이정균 유영미 송인수 양정분 김정자 권귀자 천종범 박분자 김매자 김경숙 정진석 이영남 김순자 김운용 이영란 김미정 김옥미 최형배 김수길	가락구역 홍개구역 대치구역 노현구역 호제구역 미아구역 방이구역 왕십리구역 광희구역 대치구역 서현구역 홍석구역 장안구역 잠실구역 마장구역 하월곡구역 홍은구역 역삼구역 역삼구역 대치구역 방배구역 신사구역 이태원구역 묵동구역	이현아 최복순 박옥주 강병규 이선하 이은후 문현옥 차준화 이내홍 이임순 강미숙 김춘실 박영희 김경순 이현숙 안정희 이춘자 손병기 임정모 나영심 장서운 김경열 김창열 이미애 최광수 이재성 원모순 정영숙 합승진 엄함옥 김인경 이동찬 김정호	정실구역 랑구구역 정호구역 개포구역 양재구역 개포구역 개포구역 판교구역 논현구역 면목구역 동소문구역 길동구역 광희구역 연희구역 역삼구역 개포구역 대치구역 논현구역 신원구역 신신구역 상동구역 잠실구역 하월곡구역	이준성 최복순 정명옥 김경자 김정희 이영숙 유승자 김영자 김영조 윤수업 김재홍 최정란 이상문 이영애 이양근 정운남 조상영 박현선 노영숙 권영숙 배인숙 홍근표 김은영 강성겸 박승원 박상호 정진호 조복행	개포구역 개포구역	문현진 김성훈 이현옥 권지현 김희희 김성록 이혜원 함종금 권현옥 김오순 김미경 박성자 이혜경 조상원 박규석 윤영희 김윤성 조장현 신정미 성영자 정채숙 이영옥 빈재연 조재희 정경희 송윤경 양승구 권정원 김옥자
--	---	---	---	---	---	--	--	--	---

결혼



- △심성보군(봉천구역)과 김경숙양(필동구역) 1월21일 오후 1시
- △권원삼군(회경구역)과 배인숙양 2월 5일 12시
- △최창훈군과 백경관양(유년부 교사) 2월 9일 오후 2시30분
- △우영훈군과 박연준양(박영식집사, 김진연집사 딸) 12시
- △이태성군과 정합림양 2월9일 오후 2시
- △안영국군(안병설집사, 김주련집사 아들)과 신금희양 12시
- △김종삼군과(사당구역) 정난숙양(청년부 회원) 오후 2시

별세

- △최상철(최난수권사 부친) 1월27일
- △송도준씨(쌍림) 김만준권사 모친 1월 27일
- △김신열권사(홍명순집사 모친) 1월29일
- △김재덕씨(성남·김애경집사 부친) 1월31일
- △신창호씨(용인구역) 2월 2일
- △백명화(도봉) 2월14일
- △안숙자(정능 2) 2월15일

☆ 주님의 은총이 충현교회와 편집위원회에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제가 지방에서 「월간충현」을 하나님의 은혜와 충현교회의 사랑으로 구독하면서 늘 고마움을 느끼면서도 그 때마다 배려에 대한 감사의 편지도 자주 하지 못함을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85년도에는 충현교회의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주님이 주관하시고 성취하시는 모든 일이 되시길 빌며, 또한 「월간충현」에도 무한한 발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 충현의 새성전이 하루속히 완공되어 지금보다 더욱 더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충현교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대구에서 김태우)

☆ 저는 개척 5개월째로 교회 시무하는 목회자입니다.

「월간충현」으로 목회에 도움을 삼고자 구독신청을 합니다.

(전남 강진 양봉주)

☆ 매월 보내주신 「월간충현」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게 받아 통독하며 많은 유익을 받고 있습니다.

(대구 북구 광엽교회)

☆ 월간충현을 매달 받아보고 싶습니다.

80년부터 84년 5월까지의 친구되는 강도사에게 빌려서 보고 있습니다.

여기 먼 낙도에서는 참고할 만한 책이 없어 「월간충현」을 통하여 교역에 도움이 될까합니다.

꼭 보내 주십시오.

(전남 흑산면 김병성)

☆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기는 벽지에 있는 섬교회입니다.

월간충현을 통하여 이곳 교역자는 물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받습니다.

(전남 여천군 서삼교회)

☆ 귀 교회에서 발행하고 있는 「월간충현」을 구독하고자 합니다.

(부산 동래구 박성철)

☆ 저는 주일 오전 6시30분 아세아방송을 통하여 충현교회의 예배실황을 들으며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오라 매월 발간되는 「월간충현」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농촌에 시무하다보니 전도자료가 없어 큰 고충을 느끼고 있습니다.

(경북 문경군 김철원)

☆ 하나님의 은혜중 귀교회의 무한한 영광을 기도드립니다.

제가 타교회에서 시무할 때에 귀교회서 발간되는 「월간충현」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이전관계로 인하여서 83년부터 끊겼습니다.

바쁘신 연초인줄 알면서도 망설이던 끝에 용기 백배하여 「월간충현」을 보내주십사 무리한 부탁을 드리웁니다.

(김해 예안 홍은철)

3 월 의 행 사

- | | |
|--------------------------------|----------------------------------|
| ☐ 당 회 | ☐ 전도위원회 |
| 2 일 / 3 월 정기당회 | 3 - 9 일 / 70인전도요원훈련(제4기) |
| ☐ 제직회 | 21 일 / 교도소 전도세미나 |
| 3 일 / 정기제직회 | ☐ 북한선교위원회 |
| ☐ 기획조정실 | 16 일 / 군종사병 훈련 |
| 10 일 / 월간충현 3 월호 발행 | 12 - 15 일 / 농어촌 부흥회 |
| ☐ 구역권찰회 | ☐ 교육위원회 |
| 4 ~ 9 일 / 교역자 세미나 | 17 - 23 일 / 계절학교 종합평가 |
| 22 일 / 구역축호방문 전도 | ☐ 충현동산 |
| ☐ 예배위원회 | 20 - 30 / 잔디밭 조성 |
| 24 일 / 남전도회 헌신예배 | ☐ 성경연구원 |
| 31 일 / 성례식 준비 | 30 / 주교양성부 개강 전교인 성경공부 개강 |

편 집 후 기

☆ 3 월에 들어서면 3·1절을 상기케 된다. 우리의 선배들은 나라잃은 설움속에서 독립을 외쳤고, 왜경의 총칼앞에 담대히 나섰다.

특히 3·1운동을 주도해온 안사들이 기독교 지식층이었으며, 여기에 온 백성들이 함께 호응을 같이하며 만세를 불렀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호에는 기획특점으로 3·1운동의 교회사적 의의를 재조명했다.

집필을 맡은 김차생장로는 동 논문에서 '3·1운동은 기독교인들이 애국정신으로 표현되는 사회참여 정신이다.'고 강조했다.

☆ 성전건축의 달로 정한 3월은 본 예배당 3차공사가 시작되는 달이다.

3차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의 뜨거운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설계를 맡은 최환집사에게 새 예배당 3차공사 개요를 소개받게 된 것이다.

특별히 좋은 일꾼, 좋은 날씨, 좋은자재, 재정 풍족, 그리고 안전제일에 유익토록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도해야겠다.

☆ 성경을 배우는 일에 시간을 아끼지 말아야겠다.

성경연구원이 마련한 전교인 성경공부에 온 교우들이 적극 참여하여 실력있는 신자가 되도록 노력해야겠다.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하면, 이단사설에 현혹되기 쉽고 사이버집단에 휩쓸려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다.

한주간 어느 요일이든지 시간(1~2시간)을 내서 꼭 참석하여 성경공부에 열심을 내자.

월간충현의 목적

1. 개혁 신앙의 전파
2. 말씀의 생활화
3. 성도의 교제

월간 충현

1985년 3월호

제13권 3호(통권127호)

1972년	4월	30일	창간
1985년	3월	5일	인쇄
1985년	3월	9일	발행
발행인/김창인			주
편집인/최석주			간
주			이성근
홍보출판부장/김광신			주
편집위원/장정일			조현명
			조영길
			조선근
			손경수

발행처 / 대한예수교총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 562-4181~5

충현교회 안수집사



당회장
김창인 목사



김정선
(제직회 부회계)



송인홍
(새신자부 교사)



김동원



강명순
(장학회 위원)



임봉남
(제직회 부회계)



김영진



김기열
(장학회 위원)



서동석
(봉사위원회)



이조영
(장학회 위원)



김인관
(장년부 부감)



박영식
(구역권찰회 서기)



최기홍
(새가정부 부감)



최명환
(전도·재정·건축위원)



김영생
(소망부 부감)



안종욱



이인상
(예배위원회)



최명환
(제직회 부회계)



이종석
(의료전도단)



임무천
(1교구 간사)



한송규
(제직회 부서기)



손경수
(제직회서기·기획조정위원)



정정주
(전도위 간사)



이욱
(제직회 부서기)



김대호
(제직회 부회계)



이종국
(교육위 간사)



윤성철
(대학부 부감)



황의만
(기획조정위원)



김동삼
(권찰회 간사)



이재기
(제직회 부회계)

 설 관 호 (자산관리위원)	 홍 주 영 (예배위원회)	 주 원 홍 (중현동산 직원)	 문 채 인	 김 새 명 (장년부 교사)	 주 열 호 (제직회 부회계)
 김 과 경	 김 종 연 (제6교구 간사)	 김 남 조 (제직회 부회계)	 전 재 룡 (제직회 부회계)	 임 정 우 (세계선교위원)	 전 남 일 (통사위원회)
 이 태 송 (제직회 부회계)	 김 용 석	 조 성 행 (제직회 부회계)	 현 홍 식	 이 갑 재 (소망부 교사)	 양 종 섭 (구역권찰회 부서기)
 최 한 (예배위원회)	 한 헌 일	 김 종 주	 전 홍 렬 (성가대원)	 김 형 선 (제직회 부회계)	 김 정 태 (2교구 간사)
 임 기 채 (중등부 부감)	 강 봉 수 (제직회 부회계)	 원 응 철 (세계선교회)	 이 성 원 (통사위원회)	 황 영 일 (제직회 부서기)	 나 희 주 (세계선교회 부서기)
 김 성 동 (자산관리위원)	 이 형 수 (새가정부 부감)	 김 상 규 (영아부 부감)	 노 문 한 (소년부 부감)	 김 한 기 (고등부 부감)	 김 상 덕 (유치부 부감)